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19.09	↓ 코스닥	809.22
	(-12.82)		(-4.73)
↑ 금리 (한국은행)	3.858	↑ 환율 (원·달러)	1322.20
	(+0.003)		(+0.80)



m-커버스토리

수출 기동 무너지자 반도체 지원 공감대

‘K-칩스법’ 처리 급물살

여야 16일 조세소위 열고 심사
2월 반도체 수출액 43% 급감
위기 커지자 민주당 입장 선회
이재명 “지원책 서둘러 마련을”

‘수출 효과’ 품목인 반도체의 올해 2월 수출액이 업황 불황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2.5%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현실로 찾아온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 두 번의 좌절을 딛고 머리를 맞대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구원등판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4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등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룬다. 국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겸 기획재정부 총리에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주문했고 정부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합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기재위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당시 큰 폭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반대했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면한 반도체 위기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어 세액공제 확대 중심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 통과와 키를 잡고 있는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였다.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별법을 다루는 조세소위도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민주당의 힘만으로 상임위 처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전향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도체특별법 재논의에 힘을 보탰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스오일(S-OIL) 사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등과 시삽하고 있다.

“외국기업 투자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尹 ‘사힌 프로젝트’ 기공식 참석 한-사우디 경제 외교 대표적 성과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경쟁력강화

9조3000억원 규모로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 투자이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사힌 프로젝트’가 9일 첫 삽을 떴다.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힌 프로젝트 투자가 최종 확정됐으며 이후 신속한 투자 진행으로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에스오일(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사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2·6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사힌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린다”며 “한국과 사우디는 60년이 넘는 기

간 동안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투자 계약과 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사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힌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의 생산 수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된다”며 “3년 후에는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제품들을 생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

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사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의 수율을 3배가량 높여 산업원료를 최대치로 생산하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되며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울산에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기간 동안 업계 추산 최대 3조원의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불(약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韓日 양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응원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의 위로를 보냅니다
한일간 합의는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동북아 안보 공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경제계도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전망정원부터 곤돌라까지… 휴식·문화 흐르는 한강 만든다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 한강’ 계획
“침체 끊기위해 투자 미룰수 없어”
놀빛광장 등 조망명소 만들기로

제2세종문화회관·문화마당 설치
한강-공원 걷기좋은 초록길 조성

한강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시민의 여가문화 생활 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 한강 곳곳에 문화예술이 결합된 마리아 등 수상 레저시설과 런던 도시 전경을 360도로 볼 수 있는 전망대인 스카이가든처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정원이 들어선다. 한강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 산책로와 곤돌라도 생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도시 경쟁력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이 바로 서울을 글로벌 매력도시로 도약시킬 적기이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한강에 전망가든, 놀빛광장 같은 조망 명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전망정원은 민간개발시 확보한



재단장 후 노들섬 모습과 곤돌라 예시.

공공기여분을 통해 조성하고, 놀빛광장은 생태 경관이 우수한 한강지천합류부에 만들어 시민들이 조망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시민공모를 통해 발굴한 노을명소들은 공공 건축가를 투입해 노을 특화 명소로 가꿔 나갈 방침이다.

한강 중심의 문화 예술이 꽃필 수 있게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는 서울 문화마당을 설치한다. 또 시는 한강의 수상·수변을 활용한 야외 스포츠·레저 교실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국제수영대회, 트라이애슬론 같은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한강을 스포츠의 메카로 브랜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누구나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강과 도시공원을 나무

가 무성한 초록길로 잇고, 수상활동 거점이 될 마리아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서울항을 만들고 서해벚길을 단계적으로 활성화시켜 여의선착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의도를 서해연안부터 동북아까지 아우르는 국제수상관광의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울항은 터미널 기능 외에도 여의도 국제 금융 중심지의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 도심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외에 난지한강공원 인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연내 준공하고, 잠실 및 이촌 마리아는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한강변을 개발할 때 한강과 바로 연결되는 입체 보행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행로



/서울시

와 보행데크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위를 산책하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과 관광명소에 곤돌라를 설치해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색다른 이동경험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독점에서부터 잠실 탄천쪽으로 곤돌라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을 많이 제안해 주고 있다”면서 “해당 거리가 1.6km 내외이고 곤돌라가 움직이는 속도가 초속 4~5m다. 하루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원을 2000명 내외로 보는데 이 정도 규모가 신고통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느냐는 고민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규제완화를 적용해 서울

주요 도심을 한강과 연계, 저성장시대의 도시 활력을 한강 중심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핵심 거점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설정하고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활용한다. 이를 위해 용도구역이나 높이제한 등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돕는다는 복안이다.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역을 혁신, 도시의 표정을 바꾸기 위해 시는 한강변의 약 76%에 이르는 주거지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아파트 단지과 한강을 녹색 보행동선으로 연결하고 저층부에 상업·업무 등 복합용도를 유도해 한강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35층이하, 한강변 주동 15층 등 경직된 규제를 과감히 없애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이뤄질 변화와 활력은 한강에서 끝나지 않는다”면서 “4개 수계로부터 소하천까지 확산, 332km의 지천변을 활용해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이 수변 라이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현대차, 올 185만대 생산 108만대 수출 목표

尹 대통령, 울산공장 방문

현대자동차가 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국내에서 최대 생산 및 수출에 나선다.

현대차는 9일 울산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사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울산 석유화학복합시설 기공식과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후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와 울산5공장 제네시스 생산 라인 등을 둘러봤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여러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생산은 6.9% 증가한 173만2317대, 수출은 9.9% 증가한 100만9025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국내에서 총 185만대를 생산해 108만대를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은 14.3%, 수출은 28.7% 늘어난 수치다.

/양성준 기자 ysw@

현대차는 또 대표적인 국내 생산거점인 울산공장을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넘어서 글로벌 미래차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울산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시설이다. 국산 고유 모델 포니와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산실로 연간 최대 110만대를 선적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만 17개 차종에 걸쳐 총 142만4141대를 생산해 그 중 약 66%인 93만5590대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도 국가 경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전기차 아이오닉5를 비롯해 GV60 등 전용 전기차를 차질 없이 양산하며 내연기관차 시대를 넘어서 성공적인 전동화 체제 전환을 이끌고 있다. 나아가 현대차는 울산공장에 친환경 첨단 생산 시설을 확충해 다양한 미래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은행권, 자산관리 등 ‘비이자이익’에 사활

5대 금융지주 작년 이자이익 49조
비이자이익 9.4조… 영업익의 16%
금융당국도 WM 영업확대 등 독려

그동안 이자이익에 치중했던 은행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독려한 데 이어 자산관리(WM)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이 WM 서비스를 돌고구로 삼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가계·기업대출 감소세까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50조원에 육박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10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이자이익은 49조2298억원으로 전년(41조5609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반면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9조3876억원으로 총 영업이익(57조8364억원)의 1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6대 과제 가운데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포함시켰다. 비금융업 허용, 해외진출로 높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은행권의 WM 영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4대금융 본사 전경.

/각사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영업전략의 돌파구 중 하나로 비이자이익을 꼽으며 WM영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초개인화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신탁 등 고객들의 자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 프라이빗뱅크(PB)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모바일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고객들의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AI 알고리즘이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분석 및 관리해준다. 우리은행도 프라이빗뱅크(PB) 양성 체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WM 특화 채널을 기반으로 한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기업 오너 자산 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기업 오너 자산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가하는 디지털 금융 수요에 맞춰 비대면 전담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WON 컨

시어지 소호영업부’와 ‘WON 컨시어지 WM영업부’를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개인그룹과 WM그룹을 통합한 개인·WM그룹을 신설했다. 고객들의 생애 주기별 고객 관리 연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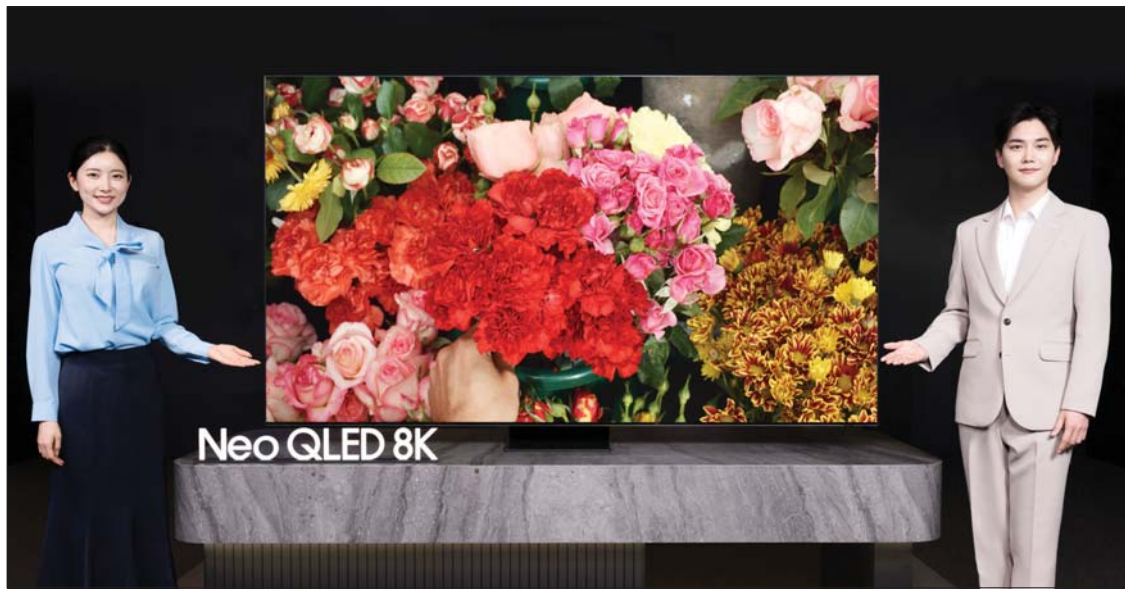
농협금융은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6개 계열사를 망라한 자산관리 전문가 단체 ‘NH WM 마스터즈’ 2기를 선발했다.

IBK기업은행도 비이자이익의 확보에 돌입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취임 첫해 디지털뱅크를 통해 25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전환을 올해 기업은행의 핵심 사업 방향으로 삼고 비이자이익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들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다만, 올해까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으로 비이자이익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2023년형 TV 신제품을 공개하고 국내에 공식 출시를 알렸다.



/삼성전자

삼성, 10년만에 OLED TV 시장 귀환... LG 정면승부 예고

SAMSUNG

삼성전자가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내세워 세계 1위 위상을 공고히 다진다. 편의기능과 초연결성을 확대함은 물론, OLED 라인업을 새로 추가하면서 더 다양한 소비자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OLED TV를 국내에 재출시한 만큼 LG전자가 선점한 OLED 시장에서 정면 승부는 불가피해졌다.

**QLED 중심 소비자 선택폭 넓혀
98형 추가... 거거익선 트렌드 반영
OLED 제품 밝기·선명도·정확도 ↑**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2023년형 TV 신제품을 공개하고 국내에 공식 출시를 알렸다.

신형 TV 라인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OLED TV다. 지난해 글로벌 출시에 이어 올해는 국내서 확대한다. 2013년 처음 OLED TV를 내놓은지 10년만이다. 한동안 수익성과 함께 상품성 한계를 이유로 OLED를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시장이 성장하고 기술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면서 상용화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OLED는 77형과 65형, 55형 등 3종으로 출시된다. 게이밍 모니터인 오디세이에도 OLED를 적용한다. 네오 G9은 32대9 비율에 1800R 곡률, 240Hz 주사율을 내는 세계 최초 49형 OLED 제품이다.

삼성 OLED는 밝기를 높이는 'OLED 브라이트니스 부스터'에 더해 '퀀텀 HDR OLED+' 기능으로 선명도를 높였다. HDR10+와 펜톤 인증 컬러매핑 기술로 선명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돌비 애트모스'로 입체적인 사운드도 구현 가능하다. QLED TV에서도 적용됐던 뉴럴 AI 퀀텀 프로세서 4K로 업스케일링과 화질 최적화 기능도 유지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 '대세'로 떠오른 OLED 라인업을 추가하며 선택폭을 넓히긴 했지만, 여전히 중심에는 QLED를 두는 모습이다.

마이크로 LED를 장착한 네오 QLED는 지난해보다 라인업을 1개 많은 7개로 늘렸다. 모델 숫자도 크기와 성능 별로 28개에 달한다. 8K 제품은 65형과 75형 85형 등 3개 크기로, 4K는 43형부터 85형까지다. 85형을 기준으로 8K는

1570만원, 4K는 949만원이다.

'거거익선'(巨巨益善, 클수록 좋다) 트렌드도 따른다. 네오 QLED 8K에 98형을 추가하고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 출고가는 1270만원으로 책정했다.

삼성전자는 신형 TV 라인업을 상향 평준화된 화질보다는 편의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네오 QLED 8K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64개로 업그레이드 한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로 업스케일링과 명암비 강화 등 화질 개선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계승·발전했다.

우선 연결성이 극대화됐다. Matter 등 다양한 IoT 표준을 지원하는 원칩 모듈로 지그비를 비롯한 여러 프로토콜을 활용해 스마트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다. 기기를 등록하면 목록뿐 아니라 3D 공간으로 위치까지 재현하는 '3D 맵뷰'로 TV를 스마트홈 중심 기기로 탈바꿈시켰다.

새로운 콘텐츠도 추가한다. 방송을 보며 채팅을 하는 라이브 채팅은 물론, 화상 통화를 하는 '커넥타임'과 함께 비대면 화상 진료를 할 수 있는 '굿닥'도 제공한다. 커넥타임은 오는 5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으로, 추후 통화를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어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더하기로 했다. 삼성 TV 플러스도 꾸준히 채널을 더하고 있다.

게이밍 허브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게임 조준선을 따로 설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모니터에 미니맵 등 정보를 따로 출력할 수도 있도록 했다.

**원칩 모듈로 스마트기기 연결
커넥타임, 굿닥 등 콘텐츠 추가
"최상의 스크린 경험 제공할 것"**

앞서 진행된 삼성전자 2023년 TV 사전 예약판매는 1200여대를 돌파해 지난해 예약판매 실적을 넘어섰다.

전체 예약판매에서 네오 QLED와 OLED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80%, 20%다. 최근 뚜렷한 대형 TV 선호 현상을 반영한 듯 75형 이상 초대형 제품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올해 새로 출시하는 OLED 중에서도 77형이 65% 이상을 차지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전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Neo QLED 8K는 2023년 한층 강화된 성능으로 새로운 시청 경험을 선사하고, 삼성 TV의 기술력이 완

성한 OLED도 처음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며 "2023년형 TV 신제품은 풍성한 혜택과 함께 고객들에게 최상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OLED TV 시장은 LG전

자가 선점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LG전자는 60%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달렸다.

LG전자는 전날 TV 신제품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OLED 출시를 환영한다며

맞대결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DB손해보험 DB생명 DB금융투자 DB저축은행 DB자산운용 DB캐피탈 DB아이텍 DB메탈 DB월드 DBFIS DBInc.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요감소·美 제재 ‘위기의식’… 대립 與野, 반도체로 ‘화합’

‘K-칩스법’ 한달만에 다시 논의

여야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한달만에 다시 이뤄지는 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요 부진 등 악영향 속에서 산업에 활기를 불어다 줄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성장 위기, 韓 반도체

전문기관들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시장이 전년대비 10% 가량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맞았지만, 진정세에 접어들어 수요 부진, 가격 하락, 재고축적 등 불황을 맞고 있는 분석이다. 실제로도, 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25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3년 반도체수출산업 전망’에서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가파른 수요감소, 가격 하락,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전년 대비 17%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이 1309억 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실적을 기록한 반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1159억달러 내외로 전망돼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급망 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도 장기적으로는 악재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미국에 지을 경우 업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 것을 제한 받는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재무건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 기대수익까지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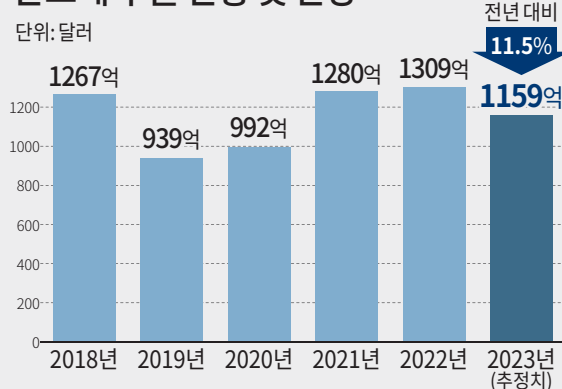
업계에선 영업비밀로 지켜야 할 기대수익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

◆與野, 정치엔 대립해도 반도체 법엔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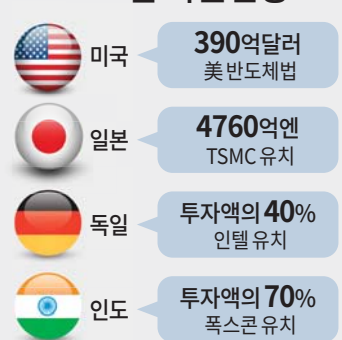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26일 미국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소조항을 풀어내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탈 전망이다.

민·당·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



주요국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현황



수요부진·가력하락·재고축적 등을 메모리 시장 10% 역성장 전망

尹 대통령, 내달 26일 美 국빈방문 반도체지원법 등 독소조항 해소 기대

민·당·정, K-칩스법 조속통과 합의 관련 업계에 5년간 30조 지원키로 이재명, 지원법 마련에 ‘공감대’

“반도체법 합의 ‘부자감세’ 특혜” 정의당·관련 학회 4곳서는 비판

통과시키고, 메모리·시스템반도체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 및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반도체 수출 부진에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라며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15%+α’로 올려놓은 법안이 있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일 민주당의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의 전향적 발언이 힘을 보탤 전망이다.

다만,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입장 선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난 연말 통과된 법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난을 받은 데에는 민주당의 반대와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한몫했다”며 “지원 시늉만 내는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재검토를 지지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법을 고치려 한다며 꼬투리 잡기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의장 들어가 봐야 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동향을 겉으로 보기엔

오는 16일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쉽게 처리될 것 같지만, 실무진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일정에 합의했을 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세소위 개회를 민주당은 하루 열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틀을 열자고 했다. 경제재정소위도 국민의힘은 3~4일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짧게 하자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결론 내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또 다시 1~2달을 기다려야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식으로는 이번엔 못하겠다. 2월달은 합의를 못했어도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더니, (조세소위)를 하루 하는 걸로 결론 내자고 해서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내막을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같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지, 합의 처리하자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특별법 같은 경우엔, (세액공제) 품목 확대, 공제율 조정, 시행령의 법률 상향 등 여러가지가 맞물려 있다.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 낯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중하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 문제도 있고 반도체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 빨리 지원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린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촉구 목소리 속 정의당은 반발

국내 반도체 학계는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관련 4개 학회 회원 333명은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지난 1

월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날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투자절벽 극복을 위해 수출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설비투자 세제지원법안 조속통과 및 최저한세율을 국제 기준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양당이 합의하는 것은 이는 재벌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세제혜택을 준다 한들 설비투자를 늘릴 이유는 희박하다. 이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추후 돌려받을 세금 액수를 늘려준다 한들, 이 시점에 투자를 더 하겠나.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던 지난 2년간에도 정부와 양당은 끊임 없이 세액공제확대를 밀어붙였다는 점 역시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1면 ‘수출 기동 무너지자’서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전환 위기 돌파위한 종합·거시적 전략 필요”

이 대표는 전날(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중 갈등과 디지털 혁명, 기후 위기와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인공지능),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장에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사람입니다

첨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도 공장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인,
39,000명의 SK하이닉스 사람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첨단 기술의 미래를 향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與 지도부 ‘친윤’ 대동단결… 다양성 확보·외연확장 과제로

당대표, 최고의원 친윤계 인사 석권
당원 100% 투표… 민심 괴리 우려
김 대표,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 신중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친윤’(親尹 석열계) 인사 중심으로 꾸리지면서,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다수 의석 확보 차원에서 ‘집토끼’인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새 지도부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선출된 데 따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기현 당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지도부 임무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민생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취임 후 첫 현장도 민생과 관련한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게 김 대표 계획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로 중도층을 포섭할 것이라는 구상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행보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보수 정당 계열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진보 정당 계열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김 대표는 현충원 참배 직후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정권의 반민생법·반경제법으로 민생이 발목 잡히고 있다. 마냥 지난 정권 탓만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격려하는 국민

과 당원들의 힘을 모아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연 확장 차원에서 이른바 ‘친윤계 당직 인선’ 우려도 불식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9일 새 지도부와 상견례 성격의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친윤’ 일색 지도부라는 평가에 “일색이란 평가는 자기가 다 정해놨나 보다”고 반박했다.

당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김 대표는 “당직 인선에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와 관련 김 대표는 계파 색채가 열은 구자근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 내정하기도 했다.

사무총장·수석대변인·비서실장 등 당직 인선도 김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대로 친윤 인사가 대거 등용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이 격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최고위와 협의를 거쳐 월요일(13일)쯤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새 지도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안배 등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것은 또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생긴 극심한 갈등 수습이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 측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8일 오후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에 ‘국민의힘 경선 투표조작 뼈박 증거’라는 영상을 올렸다.

황 전 대표는 9일 “캠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보고했다. 통상적이지 않으니 한번 검토할 생각”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전당대회 결과 불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갈등도 김 대표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했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두고 친윤계 후보들은 강하게 비판했고, 감정의 골도 깊은 상태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전 대표 측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김 대표가 갈등을 풀어 내홍까지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尹 “울산, 세계 최고 첨단산업 허브 될 수 있도록 지원”

울산 경제인 간담회

“60년간 국가 기간산업 이끌어 온 곳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올해안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공식을 가진 에스오일(S-OIL) 사한 프로젝트 일정을 비롯해 울산 경제인 오찬 간담회와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해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항만공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 남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울산 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울산은 5·16 이후인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곳”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공식을 가진 에스오일 사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설·증설을 비롯해 울산에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혁신의 허브, 울산의 모습은 기업인들과 울산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소차 안전인증센터와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조선 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분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 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 경제인들은 ▲울산시 우회도로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

재 확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제인 간담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인 ‘대화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540억달러(약 71조3000억원) 수출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한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현장인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했다.

김영국 현대차 상무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실적 169만대에서 2023년 계획은 186만대로 10% 신장했다”며 수출선적 부두 현황과 전기차 신공장 건설 개요 등을 보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자동차전용선인 ‘글로벌스 스카이하오’ 갑판으로 이동해 황창국 지마린서비스 대표로부터 최대 7500대의 자동차 선적 등 현황 보고를 받았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한길 “‘힘센 충남’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될 것”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충남도·충남도의회 MOU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인 충남이 국민통합의 중심에서서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9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충남지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충남도·충남도의회는 상호협력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



국민통합위는 9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충남지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태홍 충남도지사, 김 위원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국민통합위원회

진하기 위한 관련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통합위 역시 ‘대한민국의 힘인 힘센 충남’의 미래를 위해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충남도·충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충남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을 위촉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는 주제로 지역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16일 방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예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며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재계 총수들이 동행해 양국 정상과 함께 오찬·만찬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익 기자

LOTTERIA 

촉촉한
반숙 계란

고소한 참기름
풍미를 더한
고추장 소스

한정
판매

한국의 맛을 버거에 그대로 담았다!

전주비빔
라이스버거

단품 6,900원 세트 8,800원

‘희망적금’ 보다 예치기간 더 긴 ‘청년도약’, 흥행은 글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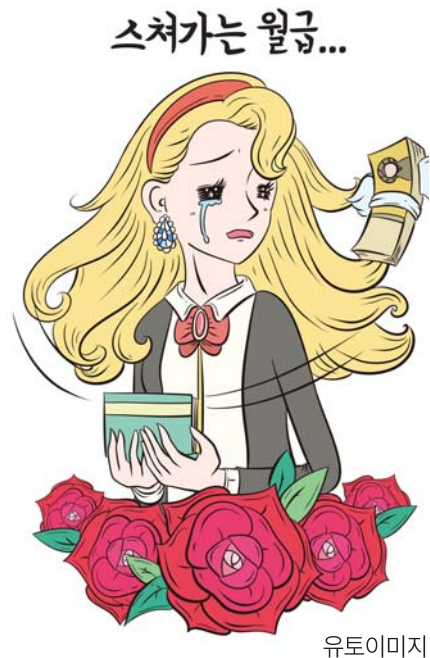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제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 부담 높아 대규모 중도해지 우려
2년간 매월 50만원 ‘희망적금’도 6개월 만에 가입자 10.5% 감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를 앞뒀지만 청년희망적금보다 기간과 예치금이 높아 흥행 성공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당초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만기가 5년으



유토이미지

로 짧아졌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매월 70만원씩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다.

매월 40만~6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44만원, 원리금

4800만원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원 납입은 3010만원, 60만원 납입은 4515만원이다.

‘청년도약’인 만큼 낮은 소득일수록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로 책정한 금리 역시 6.9%까지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예치기간 5년은 너무 길어 대규모 중도해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출시한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예치기간(2년)과 월납입액(50만원)에 부담을 느껴 해지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6만8000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16만7000명은 가입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

입자는 256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30만1000명(10.5%)이나 줄었다.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하는 희망적금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데, 5년간 최대 월 70만원 상품을 가입하는 청년들이 많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되는 상품이지만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 하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비율은 높아 희망적금과 같은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실생활에 드는 비용이 높게 치솟은 상황에서 초장기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복현 “상생금융, 일회성 그쳐선 안돼”

금감원장, 금융소비자와 간담회 국민銀 상생금융 확대추진 격려 지속가능 형태로 자리잡길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해 은행들의 상생금융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가계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와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에 손쉽게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객과의 상생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KB국민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방안 추진을 격려했다. 또 소상공인·가계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에 손쉽게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객과 상생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이 없으면 은행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고객과의

상생노력이 지속되어야 은행의 장기 지속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지원방안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또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은행의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흘러가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예금, 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돼 은행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다각화,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 은행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창용 한은총재, BIS 회의 참석차 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 BIS는 전 세계 63개국 중앙은행을 회원사로 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현직 중앙은행 총재 교류의 장’으로도 불린다.

이 총재는 오는 12일과 13일 세계경제회의와 전체총재회의, 아시아지역협



의회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이 총재는 또한 BIS 이사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귀국은 15일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기업銀-관광公, 일자리 창출 힘 모은다

‘위케이션’ 사업 추진 등 지원

IBK기업은행은 9일 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및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위케이션 사업 운영 ▲중기-구직자 일자리 매칭 지원 ▲우수 채용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스타트업과 30인 이하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기업부담금 10만원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근무제도의인 ‘위케이션’ 사업도 추진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아이원잡(i-ONE JOB)’과 한국관광공사 채용포털 ‘관광인’을 연계해 구인정보를 공유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면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승용 기자

Sh수협은행, 여성역량 강화 위해 ‘WEPs’ 가입

조직 내 성평등 문화확산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제도화 앞장

Sh수협은행이 조직내 여성역량강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섰다.

Sh수협은행은 유엔 산하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가입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약 6600개 기업이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내 여성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제공 ▲모든 근로자의 보건 및



강신숙 수협은행장(오른쪽)이 영업점 책임자 워크숍에서 여성 리더로 참여한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h수협은행

안전, 복지 보장 ▲여성인력 개발, 교육 및 훈련 강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개발 및 공급망, 마케팅 전략 구축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와 양성

평등 확보 정책 공조 ▲양성평등 달성 과정 측정 및 공시 등 투명성 강화 등이다.

수협은행은 WEPs 가입에 따라 이같은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다양성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실질적 활동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아갈 방침이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기업문화를 제도화하고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은행-고고팩토리

알뜰폰 경쟁력 강화 합리적 요금제 출시

하나은행은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인 ‘고고팩토리’와 디지털 기반의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고고팩토리와 제휴를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손님에게 합리적인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정 통신사가 아닌 요금제 비교 플랫폼과 제휴함으로써 개인별 스마트폰

이용패턴에 따른 맞춤형 요금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판매채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알뜰폰 요금제는 ▲통신사 할인 ▲휴대폰요금 자동납부 할인(휴대폰요금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월 2000원 할인) ▲하나카드 결제출금 할인(하나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대금 인출실적이 있는 경우 월 1000원 할인) ▲하나은행 첫 거래 추가 할인(월 2000원 할인) 등 첫 개통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00원의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남영 기자

현대모비스 ‘고도화된 에어백 기술’, 미래안전 솔루션 선도

‘머리 보호 에어백’ 글로벌 주목

美 NHTSA 안전 테스트 만점
동승·운전자 간 충돌 막아주고
충격에 목 꺾이는 부상 막아줘

미래 목적기반 모빌리티 에어백
전기차 적합 슬림에어백 등 개발

현대모비스가 차량내 대표적인 안전 부품인 에어백 기술 고도화로 안전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진화에 따라 차량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해외 제작사들의 독무대였던 에어백 모듈 등 안전부품 분야에서, 현대모비스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신기술들이 해외 제품군 대비 한 차원 높은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체 개발한 ‘머리 회전 방지 에어백’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신규 충돌안전 테스트



현대모비스의 PBV용 에어백들이 작동하는 모습. ① 차량 천정에서 ‘대면좌좌 에어백’이 내려와 마주보는 승객간 충돌을 방지하고, ② 천정과 지붕 연결부에서는 ‘커튼 에어백’이 실내 전체를 감싼다. ③ 동시에 좌석 시트에 장착된 ‘전방위 에어백’이 승객들의 몸을 보호하듯 둘러 상해를 최소화한다.

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에어백은 머리 회전을 억제하는 보조 챔버가 전면 에어백 왼쪽에서 튀어나오도록 해, 동승석 승객이 차량 가운데로 쏠리는 것을 막아준다. 충돌 뒤 0.05초 만에 왼쪽 챔버가 최대로 부풀어 오르고 승객의 머리가 회전하는 0.06초 시점에 챔버 압력을 최대로 하는 장치가 작동된다.

이번 테스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 또는 직진 주행을 할 때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왼쪽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데, 도어 쪽에서 터지는 에어백이 운전자를 보호하지만 동승자는 마땅한 보호 수단이 없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기존 에어백은 쿠션 크기와 에어백 형상만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라 승객의 머리 회전과 부상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대모비스 새 에어백은 동승자와 운전자 간 충돌을 막아주고, 강한 충격으로 목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입는 부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레저, 휴식, 아웃

도어 목적의 미래 목적기반 모빌리티(PBV)용으로 구성된 에어백도 공개했다. 차량 유리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투사되고 그에 따라 좌석이 회전하는 실내 형태에 맞춰 차량 내 다양한 틈새 공간에 에어백을 위치시켰다.

먼저 ‘대면좌좌 에어백’이 차량 천장 중앙에서 터져 마주 보는 승객의 충돌을 방지하고, 창문과 지붕의 연결부 네 곳에선 ‘커튼 에어백’이 실내 사방을 커버하며 쏟아져 내린다. 좌석 시트 뒷면 양쪽에서 작동하는 ‘전방위 에어백’은 탑승객의 몸을 감싼다.

현대모비스는 내연차와 크게 달라지

는 전동화 차량 구조에 적합하도록 기존 에어백의 두께에 비해 40%나 얇아진 ‘슬림 에어백’도 개발했다. 슬림 에어백은 가변형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슬림한 시트 측면의 얇은 공간에도 효과적으로 장착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2002년 에어백 양산을 시작해 현재 쿠션, 제거기, 충돌센서 등 주요 구성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며 “에어백 선행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다각도로 확보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안전 솔루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인터배터리 2023

LG엔솔, BSS·LFP 등 차세대 소재·공정기술 소개

머스탱 마하-E, 루시드 에어 등
자사 배터리 탑재 전기차 등 전시

LG에너지솔루션이 혁신 배터리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 삶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를 핵심 주제로 차세대 배터리 및 소재·공정 혁신 기술 등을 선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2차전지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3’에서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포드 머스탱 마하-E’, ‘루시드 에어’ 차량을 비롯해 사내 독립기업 KooRoo가 사업화를 준비 중인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LFP 배터리 셀 등을 전시하며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총 648m² (72개 부스) 규모로 마련



LG에너지솔루션 인터배터리 2023 부스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

되는 LG에너지솔루션 전시공간 중앙에는 포드(Ford)의 머스탱 마하-E, 미국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의 프리미엄 세단인 루시드 에어(Lucid Air)가 자리를 잡는다.

머스탱 마하-E는 포드의 전기차 전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지

난해 미국 소비자전문지 컨슈머리포트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될 만큼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모델이다.

루시드 에어도 국내 최초로 소개된다. 루시드 에어는 전기차 시장에서 슈퍼 루키로 불리는 미국 신생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가 선보인 럭셔리

세단이다.

뛰어난 성능과 높은 출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탄탄한 기술력과 독보적인 품질 경쟁력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돼 있다.

지난해 10월 LG에너지솔루션 사내 기업으로 출범한 KooRoo는 BSS(배터리 교환 스테이션)를 선보인다. BS S는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을 충전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한층 높인 서비스로 올해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시공간에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배터리로 움직이는 미래’를 소개한다.

/허정윤 기자

삼성전자 ‘ESG 주총 준비’

우편물 없애고 전자공고로 대체

삼성전자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ESG를 강조한다.

삼성전자는 15일 제54회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ESG 경영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소액주주 대상 주주총회 우편물을 완전히 없애고 전자 공고로 대체했다. 2021년 1인당 7장으로 축소하고 지난해에는 참석장과 안내문으로 간소화한데 더해 완전히 종이를 없앴다. 이를 통해 약 3500만장 중이 절감, 원목을 보호하고 탄소배출 감축도 기대했다.

주주총회 자리도 ESG 활동을 알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 ESG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에코패키지를 직접 조립해보는 체험공간을 운영한다. /김재용 기자 juk@

SK온, 급속충전 ‘각형 배터리’ 실물모형 첫 공개

‘무브온’ 주제로 확장·발전 강조
코발트 프리 등 다양한 폼팩터 선보

SK온이 각형 배터리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SK온은 다양한 폼팩터 개발을 통해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9일 SK온은 오는 15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각형 배터리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SK온은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안에 시제품 생산에 돌입

할 예정이다.

SK온이 만드는 각형 배터리는 빠른 충전 속도가 특징이다. SK온이 올해 초 미국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급속충전(Super Fast) 배터리는 18분 동안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SK온의 각형 배터리는 이 속도를 더 높였다. SK온은 기존 파우치형에 각형을 더함으로써, 공급처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온은 올해 인터배터리 전시를 ‘무브온(Move On)’이라는 주제로 꾸밀 예정이다. 창사 이후 처음 인터배터리에 참가했던 지난해에는 ‘출사표

를 던지다’라는 의미의 ‘파워 온(Power On)’이었다. 이제는 확장, 발전한다는 의미로 무브 온을 내세운다.

올해 전시의 핵심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SK온의 다양한 셀 포트폴리오다. 코발트를 완전히 배제한 ‘코발트 프리’(Co-Free) 배터리와 LFP 배터리, 각형 배터리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SK온만의 차세대 기술을 담은 전고체 배터리도 처음 실물 공개에 나선다.

LFP배터리 시제품도 공개된다. LFP 배

터리는 특히 저온(-20)에서 주행 거리가 50~70%로 급감하는데, SK온은 이를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하이니켈 배터리를 통해 축적한 소재 및 전극 기술을 LFP 배터리에도 적용하는데 성공하면서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주행 거리는 짧지만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 기술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kova@



SK온 인터배터리 전시관 전경

금호석화

英 CDP 평가등급 1년만에 네단계 ↑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 CDP의 평가 등급을 1년만에 네 단계 높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영국 런던 기반의 비영리 환경 기관으로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의 환경정보를 분석하고 등급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CDP 지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MSCI)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허정윤 기자

‘확률형 아이템 공개’ 통과… 이용자 ‘환호’, 게임사 ‘한숨’

정보 의무공개로 조작 방지 기대감
미표시 땀 문제부 시정명령·벌금

업계 “형평성·영업자유침해” 반발
구독형 모델 등 대응책 마련 분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용자들은 환호했지만 게임업계는 새 수익원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게임사는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법에 명시하게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정보를 해당 게임과 유통·제작·배급·제공하는 자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각종 홍보 수단 전반에 표기해야 한다. 그간 논란이었던 사행성, 확률 조작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



‘지스타2022’의 넷마블 전시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신작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권고와 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환호했다. 2021년 일부 게임사가 게임의 확률을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위, 불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수백, 많게는

수천까지 돈을 썼는데 결국 조작이었다. 당시 실망했는데 이번 공개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게임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자율규제를 의무로 바꾼 의미지만 형평성과 영업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법이 새로

운 아이템을 포섭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에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 될 것.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광고에 모든 아이템을 공개하라고 한것도 게임사 입장에서 부담된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도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이며 확률은 영업비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그간 게임사들은 각자 방침에 따라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이어왔다. 해외 게임업체와의 역차별 이슈 해결도 관건이다. 해외업체는 그간 자율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온라인과 모바일 상위 100위권 내 규제 대상 게임(각각 72개, 87개) 중 국내 개발사 게임의 준수율은 97.1%에 달했지만 해외게임은 53.2%에 그쳤다. 유통사별 준수율도 국내 97.3%, 해외 47.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자율규제 미준수 횟수

를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누적횟수가 미국2개, 중국5개로 해외 유통 개발한 게임이 대부분인 자율규제 준수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게임 절반 이상이 자율규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는 “국내에만 규제를 접목하는 건 역차별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법을 다루는 A 변호사는 “해외 사업장자도 국내 법망 내에서 제재가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사들은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넥슨은 1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출시와 함께 ‘3NO(No P2W, No 캡슐형 아이템, No 확률)’를 선언했다. 아이템 보유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또 엔씨소프트는 신작 ‘TL’을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보다 구독형 모델 적용에 무게를 실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LGU+, 빅웨이브로보틱스와 로봇사업 강화

심리스 서비스 로봇 제공 등
신규모델 실증·솔루션 개발

LG유플러스가 국내 1위 로봇자동화 기업과 손잡고 로봇 사업 강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국내 1위 로봇자동화 플랫폼 운영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LG유플러스 임장혁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 빅웨이브로보틱스 김민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운영하는 ‘마로솔(마로봇솔루션)’은 고객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최적의 로봇솔루션을 추천하는 플랫폼으로, 400여 공급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 플랫폼은 고객이 자동화를 희망하는 공정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3000건 이상 자동화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실패·지연 케이스를 시



LG유플러스 임장혁 기업신사업그룹장(오른쪽)과 빅웨이브로보틱스 김민교 대표(왼쪽)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LG유플러스

나리오별로 분석, 최적의 공급기업을 매칭하고, 비효율적인 비용·소통을 최소화한다. 빅웨이브로보틱스는 LG유플러스가 각종 솔루션 사업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고객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매장·산업현장 전체에 음영지역 없는 LTE·5G 통신 기반 심리스(Seamless) 서비스로봇을 제공하고, 빅웨이브로보

틱스는 마로솔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상품을 신규 고객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양사는 신규사업모델 실증을 통해 관련 로봇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고객 컨설팅·로봇 시범 운영·설치·유지보수 등 고객이 서비스로봇 도입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에 대해 협력하면서 로봇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채윤정 기자 echo@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개선작업, 로컬사업 성장 효과

중소업체일수록 더 긍정적 영향
프랜차이즈업체 보다 1.5배 효과

네이버의 방문 인증, 키워드 리뷰 등 리뷰 개선 작업이 로컬사업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연구팀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의 사업자 성과향상 효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플레이스 리포트 2022 파트2’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와 로컬사업 성장 간 관계를 분석하고, 플레이스 리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연구는 ▲음식점 ▲미용 ▲숙박 ▲사진·스튜디오 ▲운동시설 ▲여행·명소 등 업종의 총 10만94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만족도 조사에는 사업자 876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플레이스 리뷰의 개수가 많을수록 ▲업체의 페이지를 열람하는 사용자 수 ▲조회수(PV)가 증가하고 ▲길 찾기 사용자 수 ▲장소저장 사용자

수 ▲장소공유 사용자 수 ▲전화걸기 사용자 수 등 지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플레이스 리뷰가 사업자 사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SME의 업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스 리뷰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PV, 길 찾기 등 고객의 방문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에서 SME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평균 1.5배 큰 상승폭을 보였다.

/채윤정 기자

SK네트웍스, 美 AI기업에 2200만弗 투자

‘휴메인’ 시리즈 C 라운드
AI로 신개념 디바이스 개발

사업형 투자회사로 거듭난 SK네트웍스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도 투자를 이어갔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말 미국 투자법인 하이코 캐피탈을 통해 ‘휴메인’ 시리즈 C 라운드에 22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9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이를 통해 2.6%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리드투자자는 킨드레드벤처스로,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만 등 기존 투자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볼보, LG테크놀로지벤처스 등도 새로 투자자로 합류했다.

휴메인은 AI로 신개념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애플 출신 창업자들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만들어 차세대 개인용 모바일 컴퓨팅을 제공한다는 포부다.

SK네트웍스는 애플 핵심 인력이 창업한 스타트업이고, MS와 퀄컴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SK네트웍스의 투자 결정에 대해 임란 초드리 휴메인 공동 창업자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휴메인의 혁신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로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가 넘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가스 LPG 생계형 고객 위해 100억 투입

상생프로그램 취약층까지 확대
이달부터 세분화해 순차적 지원

SK가스(₩)가 LPG사용 고객을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SK가스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생계형 LPG 차주들과 에너지취약계층인 어린이(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한부모 가정) 및 복지시설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SK가스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LPG 소비자를 위한 핀셋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충전소 지역 상생, 어린이 안심정류장 및 교실숲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멤버십 추가 적립,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SK가스가 추진해온 LPG 소비자 상생 프

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LPG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인데 지원 분야를 세분화해 LPG 사용자뿐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규모 또한 전 보다 커져서 총 1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약 15억원을 투입해 생계형 LPG사용 고객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그리고 약 10억원 규모의 LPG 사용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LPG 사용 고객이 아닌 취약계층 상생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복지 재단을 통해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00여명의 어린이가 취약계층과 LPG 소형탱크를 사용하는 2500개의 복지시설에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정운 기자

KYO
WON 교원투어

떠나고 싶은 마음에게
쉽게 답을 주는 여행사

여행이지

교원이 만든 새로운 여행사 여행이지와 함께
당신이 원하던 여행을 쉽게 떠나 보세요



WEB AWARD
22 INNOVATOR

웹어워드코리아 2022
문화/레포트 부문 대상 수상

수상대상 (주)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X 파인너츠



www.kyowontour.com

중소형기업, IPO 시장 맹활약… 올해 15곳 중 9곳 ‘따상’

대형 비해 물량 적고 공모가 저렴
기관·일반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전문가들 중소형주 강세 지속 전망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대어급 종목들이 상장 철회를 하는 반면, 중소형 기업들은 악조건에도 성공적인 증시 데뷔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IPO 예상 기업 수는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 기업 15곳 중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한 곳은 9곳으로 집계됐다. 나노팀, 미래반도체, 바이오인프라, 삼기이브이, 샌즈랩, 스튜디오미르, 이노진, 오브젠, 꿈비 등이다.

IPO 시장에서 통상 1~2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꼽힌다. 3월에 나오는 감사보고서를 통한 감사의견과 영업실적을 바

〈2023년 따상 기록한 IPO 종목(단위:원)〉

기업명	신규상장일	상장시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
미래반도체	1월 27일	866억	2392억
오브젠	1월 30일	698억	1944억
삼기이브이	2월 3일	1573억	2874억
스튜디오미르	2월 7일	1004억	2225억
꿈비	2월 9일	397억	2144억
샌즈랩	2월 15일	1585억	2607억
이노진	2월 20일	361억	582억
바이오인프라	3월 2일	1007억	1175억
나노팀	3월 3일	2490억	5066억

탕으로 회사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 IPO 기업들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시장에 공모 대기자금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해에만 컬리를 시작으로 골프존카운티, 케이뱅크, 라이

온하트스튜디오, 오아시스가 모두 상장을 철회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가 산정과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공모 시기를 미뤘다. 반면, 중소형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저렴한 데다 유통 물량이 적어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

최근 따상을 기록한 중소형주들의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스튜디오미르 1701.6대 1, 이노진 1603.3대 1, 꿈비 1547.1대 1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 경쟁률도 스튜디오미르 1592.9대 1, 이노진 1643.9대 1, 꿈비 1772.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 시장의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IPO 시장에 지속적인 참여로 공모주 수익률이 높아지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을 참고하면서 비슷한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 청약 경쟁률이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과 동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증시 대기 자금도 풍부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대

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151조원에서 지난 2월 말 기준 197조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어급 종목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오는 3월에도 IPO시장에서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를 전망했다.

3월 중 IPO 예상 기업수는 12~15개로 집계됐다. 과거(1999~2022년) 3월 평균인 5개와 최근 5년(2018~2022년) 8개와 비교했을 때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종선 연구원은 “3월 상장 예정 기업 중에서는 상장 규모로 가장 눈 여겨 볼 종목은 지아이이노베이션(공모금액 320억원, 상장 시가총액 3500~4600억원)”이라며 “공모금액 면에서는 대형스팩 3개사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700억원, KB스팩24호 400억원, 삼성스팩8호 400억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에스엠 주가 3개월새 2배 ↑… 인수전 불투명

경쟁 격화되며 투자비용 높아져
일각서 ‘승자의 저주’ 우려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둘러싼 인수전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에 이어 카카오마저 공개매수에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 모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인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투자비용이 점차 높아져가는 탓에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엠 주가는 전일 대비 3600원(2.27%) 내렸지만 15만4900원에 장을 마치면서 15만원을 웃돌고 있다. 전날에 이어 주가가 이를 연속 카카오의 공개매수가(15만원)를 넘었다. 오는 26일인 공개매수 종료일까지는 기간이 여유있지만 앞서 지난달 28일 하이브가 진행한 공개매수가 실패한 만큼 불확성이 남은 상황이다.

또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에스엠이 절실한 하이브인 만큼 추후에 맞불전략을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

제를 갖춰 빅히트, 쏘스뮤직, 어도어, 플레디스 등 다수 레이블을 통해 IP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의존도가 과했던 2020년(92%) 대비 지난해 60%대로 낮췄지만, 여전히 의존도가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지난 2021년에는 북미시장 강화를 위해 저스틴비버·아리아나그란데가 속한 이타카 홀딩스로 인수했다. 여기에 중국·아시아 등에서 활동해온 에스엠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는 북미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에스엠은 중국 및 아시아에서 견고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인수 성공 시 해외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양사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하이브는 최근 추가적인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최대 18만원의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에스엠 인수가 절실한 것은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시장 매출 비중

을 높이려 하는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IT기술에 지적재산권(IP)를 접목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K-팝 영역의 부족한 퍼즐을 에스엠 인수로 메꾸겠다는 복안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 성공시 연간 2500만장이 넘는 음반판매량, 연간 250만명의 공연모객력을 갖추며 조 단위 매출로의 퀀텀 점프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수 경쟁 격화로 인수 부담 비용이 크게 오르자 두 곳 중 어느곳에서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 7만6000원대였던 에스엠 주가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배가 넘게 치솟은 상황이다.

또한 주가 급등에 에스엠 주식에 공매도 투자도 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7억원에 불과했지만, 전날에는 159억원까지 치솟으면서 9배 이상 급증했다.

/이영석 기자 ysl@

한화 건설부문, 수처리시설 종합 솔루션 제공

㈜한화 건설부문이 수처리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처리시설의 현대화(개량·증설·이전), 자금조달, 운영 등에 대한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안하는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혐오·기피시설로만 생각했던 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

상은 열린 공원과 함께 체육, 문화, 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진 다목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대규모 환경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20일 1조원이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체결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노후화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이전·현대화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214억원(실시협약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분야 민자사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한화 건설부문

업이다.

최신 하수처리기술을 적용하고 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를 차단하며, 지상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



손병두(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3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열린 KRX ESG 경영 원년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ESG 경영 속도 ‘미래 지속 가능성’ 강화 방점

증시개장 67주년… ESG 원년 선포
손병두 “지속가능 거래소 도약할 것”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개장 67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ESG경영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 지속가능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KRX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미래 지속가능 거래소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선포식 행사에는 증시 발전과 안정적 시장운영에 기여한 대내외 업무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렸다.

먼저, 거래소는 ESG경영 확산을 위한 슬로건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Exchange for Sustainable Growth, ESG)를 공개했다.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슬로건으로 상장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ESG 비전 달성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전략방향을 각각 ▲‘친환경’ 금융을 선도하는 리더 ▲다양한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신뢰’를 주는 거버넌스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9대 전략과제 및 세부실행 과제를 공유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ESG 경영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장기업 뿐 아니라 거래소 스스로가 구체적인 ESG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ESG 경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KRX 국민행복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교육·인재육성·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업무에 페이퍼리스 보고 솔루션을 도입하여 종이 소비량을 절감하고 업무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ESG 경영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내부 ESG 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경영지원본부 내 ESG경영혁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달에는 ESG 경영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반기 중 ‘KRX ESG 경영 로드맵’ 수립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ESG 공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영석 기자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2題

■ 신흥국 경기개선에 외국인 채권자금 53억달러 이탈

1월 52.9억 달러 빠져나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유출
국내 차익거래유인 축소 등
불확실성에 모니터링 강화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신흥국의 경기개선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조정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지난 2020~2021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채권자금은 지난해 1월 약 53억달러가 빠져나갔다.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27억3000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뉴시스

만달러에서 올해 1월 52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월간기준 역대 최대치다.

한은은 유출규모가 확대된 이유로 ▲해외공공기관 투자여력 약화 ▲신흥국 포트폴리오 조정 ▲국내 금융시

장 차익거래유인 축소 ▲단기차익 실현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채권자금 중 일부가 회수된 것

로 관측됐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과 신흥국의 경기개선에 따라 국가별 투자비중을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채권자금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된 점도 채권자금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일부 외국인 채권투자자는 미 달러화를 담보로 외환(FX) 스와프 시장에서 원화를 빌려 채권에 투자한다. 최근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는 양호한 달러 유동성으로 차익거래유인이 크게 줄었고 일부 만기에서는 차익거래유인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기도 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차익 거래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국내 채권시

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불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은 23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1.25%포인트(p)까지 벌어졌음에도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 공공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되고, 차익거래 유인도 다시 확대되면서 공공 및 민간기관의 국내채권 투자가 재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권자금은 글로벌 물가와 성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고금리發 주택가격 추가하락 예상... 비은행 금융기관 건전성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택값 하락
호황기 갭투자자 임차인 리스크 ↑
고위험 PF 사업 부실 현실화 땐
비은행 금융사 자본적정성 등 저하

올해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주택 매매·전세가 가격이 떨어지면, 호황기 갭투자자로 전세를 준 주택은 임대보증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주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급매물 거래 증가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됐지만 이후 소득, 투자자치 등이 괴리되면서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9월부터 상승하다 2021년 말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한국은행은 고금리가 이어지며 주택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

봤다. 주택가격의 기대심리는 높은 지속성을 가졌는데, 하락기대심리가 상당기간 이어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이 발생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호황기

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물량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을 더 낮춘다. 또 주택가격이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져 임차인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갭투자 주택가운데 40%는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을 밑돈다.

또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와 자금을 공급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분양시장 여건을 보면 사업초기 사업장은 고금리와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 대출 기피 등으로 사업지연·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완공 전 사업장도 미분양 재고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고정비용이 높아 신비율과 상장종합건설사 주가에 내

재된 예상부도확률이 상승하며 건설업체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고신용위주의 차주로 구성돼 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위험노출금액)와 아파트 외 사업장에 대출비중이 몰려 있다. 고위험 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높아진 불확실성에 기업결합 2년 연속 1000건 돌파

비계열사 간 결합은 17.7% ↓
계열사 간 결합건은 18.9% ↑
IT·바이오 분야 인수합병 활발

지난해 기업결합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으나,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도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비교적 활발했지만,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감소한 반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크게 증가했다. 위드코로나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총 1027건, 기업결합 규모는 325조5000억원으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2021년) 대비 86건(-7.7%), 기업결합 규모는 23조5000억원(-6.7%) 감소했다. 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 소폭 감소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876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나, 기업결합 규모는 58조원으로 17.8% 수준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건수와 규모는 각각 8.2%, 10.1% 줄었다.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7.3% 감소했지만, 기업결합 규모는 12.5%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건수와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47.6%, 96.3% 급감했다.

특히,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7건(+18.9%), 기업

결합 규모는 2조3000억원(+21.3%)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성장동력 확보의 미를 갖는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과 규모는 각각 125건(-17.7%), 9조원(-16.8%)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63건(18.6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규모의 각각 30.0%, 32.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12.9%), 규모(-44.1%) 모두 감소한 수준이다.

전년에 이어 SK의 기업결합 신고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한화(각 19건), 현대자동차(10건), 롯데(9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하면 SK(18건), 한화(9건), 현대자동차(9건), DL(6건), 롯데(6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다.

전체 기업결합 중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51건으로 전체 건수의 14.7% 수준이나, 기업결합 규모는 26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다. 다만, 전년 대비 건수(-5.0%), 규모(-5.9%)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0건이었고, 미국·싱가포르(각 7건), 영국(6건), 중국(5건), 일본(4건) 순으로 국내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3%(342건), 서비스업이 685건(66.7%)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IT나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 배달·택배 등을 위한 종이 상자·용기 제조, 비대면 사업을 의미하는 무점포 소매업 등에 대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층심사를 진행한 건은 총 35건으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이 가운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 합병 등 2건은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

로 판단돼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2021년 대비 약 18% 증가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위드코로나 및 금리인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기업결합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사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中企 제약업계 첫 ‘공동물류센터’… 의약품 물류비 30% 절감

피코이노베이션 준공식 개최
자동화 창고 등 3.6만셀 규모
피킹시스템 등 첨단설비 갖춰

제약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2년 가까이 공들인 첨단 자동화 공동물류센터가 경기 평택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활한 약품 공급과 물류비 절감이 제약 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덕에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피코이노베이션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드림산업단지에 제약업계 최초의 공동물류센터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1년 5월 첫 삽을 뜬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피코이노베이션은 한국제약협동조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주도해 설립한 피코이노베이션이 9일 오전 경기 평택 드림산업단지에서 첨단 공동물류센터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서 (왼쪽 6번째부터)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근 일성신약 회장,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총괄 사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합이 주도해 설립한 제약 물류 전문회사다. 2020년 7월 당시 10여개 제약사들이 출자한 이후 지금은 참여사가 26곳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를 한국제약협동조합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공

동 물류센터를 통해 참여 제약사들은 창고 부족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도 기존 대비 3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잔여부지에는 제2의 제약 공동 물류센터 및 의료가기 전용 물류센터도 추가로 구축해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용을 드러낸 첨단 자동화 제약 물류센터는 드림산업단지 내 총 1만6000여평의 부지 가운데 1차로 대지 5200평, 연면적 1만2500평 규모(지상 5층, 지하 1층)로 구성돼 있다.

물류센터는 자동화 창고 2만4000셀을 포함해 총 3만6600셀 규모로 피킹시스템 등 첨단 자동화 설비와 냉장·냉동 창고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제품 보관, 선별 및 포장, 배송 등의 출고 업무뿐만 아니라 반품, 회수까지 담당하는 ‘토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류센터가 위치한 드림산업단지는 평택~화성간 고속도로와 평택~제천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이들 고속도로를 통해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매우 편리하다. 서해로 나가는 평택항과도 가깝다.

이날 준공식에는 공동물류센터 참여 기업 대표자와 협력사 관계자 등을 비롯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유승영 평택시의회의장은 영상 축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중견 제약사간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조합원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체다. 조합은 경기 화성 향남제약공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의 공인 시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제약조합은 공동시험센터 활성화 및 향남제약공단 내 대규모 시설 보수 등 투자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동 물류센터에 이어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중소·중견 제약사들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조성에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산업부, 중견기업 혁신펀드 5년간 1조 조성

올해 특화펀드 2150억원 조성
민간펀드도 2024년 출시 목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올해부터 5년간 총 1조원 규모 중견기업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더프라자 호텔에서 장영진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성장금융 등과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민·관 협력 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견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4개사가 출자에 참여하는 등 차세대 젊은 경영인들이 펀드 조성에 함께한다. 참여 중견기업은 와이

지-원, 에스디바이오센서, SIMPAC, 한국카본으로 각 25억원을 출자한다.

이번 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이들 중견기업 출자금 100억원과 정책자금인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을 기반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특화 펀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근금리상승 등으로 신규 투자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도록 2027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우선 이날 출범한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11월부터 1차 펀드 투자가 시작되고, 올해 안에 1000억원 내외의 2차 펀

드 조성도 착수하는 등 2025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조성한다.

또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5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 조성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간 협력모델에 투자하는 ‘중견 연합형 벤처모펀드’는 중견기업 출자금 등 100% 민간재원을 활용해 2024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과 공동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인수합병 등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1인 창조기업 91.7만개… 1년새 2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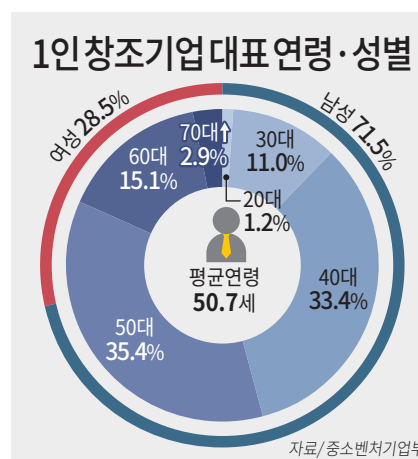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포함
분류 기준 변경돼 ‘착시효과’

1인 창조기업이 분류 기준 변경으로 1년만에 2배가 넘게 늘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32개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내놓은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숫자는 91만736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의 45만8322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1년새 크게 늘어난 것은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에 그동안 조사에서 빠졌던 가구 내 사업체인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1년전과 단순 비



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1인 창조기업 숫자는 2018년엔 42만7367개였다. 대표자 연령은 평균 50.7세, 성별은 남성이 71.5%, 여성이 28.5%로 남성이 많았다. 2021년 기준 기업당 매출액은 평균 2억9800만원, 당기순이익은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15.3개월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한진 ‘카고 바이크’ 친환경 배송 강화

㈜한진이 전기를 사용하는카고바이크를 도입 운영하며 친환경 배송에 주가로 나선다.

9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에 카고 바이크 1대와 전담 택배기사 1명을 투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서울 일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카고 바이크’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운송수단이자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이 불가한 지역 내에서 근거리 라스트마일(Last-mile) 배송에 최적화된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 개의 바퀴가 최대 130kg까지 적재할 수 있는 차체에 안정감을 주고 4시간의 충전으로 63km를 주행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고용부, 특고 돕는 지자체에 최대 3억 지원

(특수고용직)

지자체 15곳… 민간기업 1곳 선정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일터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은 소요비용의 50%까지, 최대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차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15곳과 민간 기업 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일터 개선 사업은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최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휴게 공간이나 최소한의 안전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터 개선 사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역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배달 노동자가 가장 많은 천안시에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계획도 제출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올 50세이상 재취업자에 최대 50만원

올해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1054곳

직무훈련 등 재취업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정년 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설

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 공고는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의류 / 화장품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딜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창업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30년 역사 햏터그룹

BH 대한홍삼[주] 브레인TV (주)햏터라이프 (주)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오르는 월세·식비에 학기 중에도 ‘알바’ 뛰는 대학생들

대학가 원룸 월세 75만원 수준
중앙대, 기숙사 경쟁률2.2대 1
성균관대 ‘천원의 아침밥’ 운영
이화여대, 학식 단품위주 구성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개학기 대학생들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아르바이트 구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가 원룸 월세는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했으며, 외식 비용도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9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6%가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 알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동일 조사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2021년 67.8%, 2022년 58.0%으로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알바천국은 “올해 대학가 알바 구직 경쟁이 예년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대면 강의가 재개된 만큼 구직 활동 더 활발해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비가 오르면서 대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교내식당 밥값까지 올라 편의점 음식을 먹는 등 저렴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대학생들도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13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줄 서 있다.

/뉴시스

질 전망이다.

대학생들의 알바 구직 이유는 ‘학기 중 생활비 및 용돈 마련’(84.2%, 복수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 경험,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29.1%) ▲유학, 여행 등을 위한 목돈을 모으고자(24.9%) ▲등록금 마련(20.5%) ▲학기 중 생활을 규칙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11.9%) ▲공강 시간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11.9%) 등이 있었으며, 모두 30% 미만의 선택율을 보였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동월 대비 4.

8%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물가 상승세는 작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 강의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대학가 원룸 월세도 평균 60만원을 넘어 75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시세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용 면적 33㎡ 이하이면서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이화여대 인근이 6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51만7000원) 대비 34% 수준 상승했다.

주거지 부담이 가중되자 기숙사를 찾는 대학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중앙대의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지난해 1.4대 1에서 이번 1학기에 2.2대 1로 상승했다.

주거비용 부담이 고조되면서 자취생들의 식비 걱정도 늘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국립대생 노모(25)씨는 “물

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바깥 지출을 줄이고 요리를 시작했다”며 “친구들과의 잦은 약속때문에 알바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식당에서 해결하는 한 끼 식사 비용이 오르자 학식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균관대의 1월부터 3월까지 학식당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인문사회캠(2만8762명)과 자연과학캠(4만4992명) 학식당 식수 총합은 7만3754명이었지만, 올해는 8만5668명(인사캠 3만8080명, 자과캠 4만7588명)으로 전년 대비 16.15% 상승했다. 성균관대는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자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 역시 “학식당들의 강력한 가격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최대한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리모델링해 새로 오픈하는 식당 역시 단품 위주로 구성해 저렴하게 책정하고자 했다”고 학생들의 식비 고충에 공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신뢰도 낮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되나

학폭근절·피해자 회복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순신 사태에 국민들 경악
학폭 피해자 보호기간 한 곳 뿐”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나면서 학폭 가·피해학생 대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학폭 대처 관련 떨어진 신뢰도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하며 다시 학폭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학교 현장의 일상적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 보호 기관은 단 한 개”라며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폭 피해자 보호 시설이 부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하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해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라며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사자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폭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학생들에게 연결되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치료 진행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아름 학폭 전문 변호사는 “제도가 많이 개선돼 왔는데도 학생들은 제도를 못 믿고 있다”며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가해·피해학생 모두 불복을 제기하고,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도를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것과 가정환경, 경제력, 권력 여부 이런 것들이 결과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폭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음에도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이유를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입증한 셈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전에는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이듬해인 2012년 1학기부터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가해자 조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시 최대 2년간 보존되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초기에는 발생 비중이 높았던 신체 폭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양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을 지원하고 인성 교육을 통해서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총장 항의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전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의혹 해소의 책임이 있는 서울대의 행태는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동대문에 500평 규모 패션쇼장 연다

팝업스토어·라이브커머스 등 가능

서울시는 오는 15일 침체된 동대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중구 마장로 22 DDP 패션몰)를 패션산업 복합지원시설로 리모델링해 개관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단장한 시설의 규모는 1609㎡(약 500평)이다. 패션쇼와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열 수 있는 개방형 통합공

간과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 6~20인 규모의 회의실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2009년 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면서 “2021년 17기 디자이너 배출을 끝으로 낙후된 시설 보완과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능과 공간으로 재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인천시, 노인 일자리 지원 평가 ‘전국1위’

인천 2개 수행기관 장관상 수상도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조기등록 추진 평가 분야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전국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2곳이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천300여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낸 전국 5개 기관이 선정됐

는데 그중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각각 1위와 2위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또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한 7개 기관은 상위 60개 기관에 추가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의 50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일자리 사업계획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면, 참여희망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신청한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 ‘25곳 골목상권’ 제2의 힘지로 만든다

자치구별 1곳씩 최대 1억원 지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1곳씩 총 25개의 골목상권을 선정해 각 대상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상인들이 상권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상인들이 협력해 상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인 조직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휴게공간도 확충한다.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기 좋은 조형물, 포토존, 거리디자인 등 공간 연출을 지원해 시민들의 방문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기자

해외직구 익일배송… 알리익스프레스, 韓에 1000억 투자

서울 코엑스서 국내 첫 기자간담회
“해외직구 더 쉽게 만드는게 미션”
배우 마동석 출연 광고영상 공개
3~5일 배송 ‘초이스’ 서비스 개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한국 시장 안착을 위해 1000억여원을 투자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9일 국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산하 해외 직구 플랫폼으로, 중국 내 상품을 전세계 각국 소비자와 연결한다.

정형권 알리바바그룹 한국 총괄 대표는 “알리바바그룹은 전세계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커머스, 물류,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라는 항해에 새로 합류할 유수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한국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상품, 더 합리적인



9일 알리익스프레스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가 한국 고객 유치전에 나선다. 사진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향후 계획을 설명 중인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의 모습. /김서현 기자

가격, 더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올해 마케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1000억여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미션은 해외직구를 더욱 쉽게 만드는 것이며 한국 소비자의 신

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해외직구 장벽 해소와 더 나은 고객경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송출될 TV 광고 영상도 공개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날 배우 마동석을 전속모델로 판매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

중과 TV는 물론, 극장, 온라인 공간,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까지 동원한다.

전속모델로 활동하는 배우 마동석은 중국 해외 직구와 관련한 온라인의 ‘꿀팁’ 주인공이었던 이력으로 선정됐다. 중국 직구가 본격화 하던 초창기부터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중국 내 판매자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마동석으로 바꾸면 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꿀팁이 돌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고객을 위해 ‘초이스(Choice)’ 서비스를 개시한다.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들을 초저가로 선보이는 것은 물론, 3일에서 5일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내지는 익일 배송도 지원한다.

초이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매달 1일부터 3일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초이스 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타오바오 컬렉션(TBC)도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타오바오 컬렉션은

국내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 의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한다. 정식 출시 후에는 매일 10만 개 신상품을 제공한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국내 시장 홍보에 들어가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코엑스 아티움 앞 K-POP 스퀘어를 활용해 팝업스토어도 설치하고 주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12일까지 운영하며 다양한 상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이벤트 참가를 통한 경품 수령까지 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09년 알리바바 그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내놓은 B2C 서비스다. 2019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중국어의 한국어 번역 및 원화 표시 등 쉽고 간단한 서비스 이용법으로 입소문을 탔다. 지난해 국내 3대 간편결제 서비스 정식 운영을 시작했으며 11월부터 국내 고객 상담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올해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제로슈거 ‘처음처럼 새로’ 소주시장 대세로

롯데칠성, 4개월 누적판매량 5000만병
2분기 640ml PET 제품 출시 예정
브랜드 앰배서더에 더글로리 ‘이도현’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9월 선보인 ‘처음처럼 새로’가 기존 소주 제품과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깔끔함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처음처럼 새로운 ‘제로 슈거(Zero Sugar)’ 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소주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부드러운 목넘김과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작년 출시 이후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처음처럼 새로운 앰배서더로 배우 이도현이 낙점됐다. /롯데칠성음료

5000만병을 돌파했다. 올 2분기에는 가정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640ml PET 제품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새로’ 출시 당시 한국의 전래동화를 비롯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매력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구미호에서 따온 ‘새로구미(새로+구미호)’를 브랜드 앰배서더 캐릭터로 선정하

고, 제품 전면에 배치해 기존 소주 제품들과의 차별되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3월부터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여정’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이도현’을 새로운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하며, ‘남자새로구미’의 비주얼과 목소리 연기를 맡아 부드럽고 산뜻한 ‘처음처럼 새로’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첫 선을 보인 ‘처음처럼 새로’가 국내 소주시장의 대표적인 ‘제로 슈거’ 소주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브랜드 앰배서더 ‘새로구미’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며 ‘처음처럼 새로’가 소주시장의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제과, 카스타드에 ‘친환경 포장재’

연간 잉크·유기용제 100톤 절감

롯데제과가 롯데중앙연구소, 유상공업과 협업해 ‘플렉소’ 방식 인쇄 설비로 제조한 친환경 포장재를 카스타드 제품에 적용하며 포장재 다이어트에 나선다.

이번에 활용한 플렉소 인쇄 방식은 환경오염 방지와 탄소 배출 감소에 적합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 공인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했다. 유성잉크가 사용되는 기존 인쇄 방식과 달리 안전성 높은 수성잉크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양각 인쇄로 잉크는 물론 유해 화학물인 유기용제 사용량도 대폭 절감 가능하다. 또한 기존과 다른 건조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감돼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다.

롯데제과는 칙촉, 카스타드에 이어 몽셀, 빈즈, 하비스트, 아채크래커 등 대표 제품의 날개 속포장재를 플렉소 인쇄 방식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추후 꼬깔콘 외포장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장재 제조 시 사용하는 잉크 및 유기용제의 양을 기존 대비 연간 약 100톤 가량 줄일 계획이다.

한편 롯데제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재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케익 및 비스킷 제품에 쓰이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카스타드’, ‘엄마손파이’, ‘칸쵸’ 등에 친환경적 가치를 담고자 플라스틱 재질의 완충재와 용기를 종이로 변경했으며 연간 약 60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파리바게뜨 ‘인생크림빵’ 3종 출시

SPC그룹의베

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부드럽고 달콤한 우유생크림을 풍부하게 가득 채운 ‘인생크림빵’ 3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제품은 ▲파리바게뜨 스테디셀러인 단팥빵 속에 진한 바닐라빈 우유생크림을 가득 담은 ‘단팥 생크림빵’ ▲부드러운 빵 속을 고소한 바닐라빈 우유생크림으로 가득 채운 ‘우유 생크림빵’ ▲달콤하고 바삭한 소보루빵에 부드러운 바닐라빈 우유생크림을 듬뿍 넣은 ‘소보루 생크림빵’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CJ올리브영, 앱에 ‘W케어 서비스’ 론칭

월경 솔루션 등 4개 카테고리 마련

CJ올리브영이 10일부터 자체 앱에 월경 주기 관리 서비스인 ‘W케어 서비스’를 론칭하고, W케어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한다.

회사 측은 W케어가 ‘우리(We), 여성(Woman), 웰니스(Wellness)’의 의미를 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다.

고객들이 W케어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상품을 소개한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월경 솔루션을 위한 ▲월경 솔루션 W 밸런스 ▲건강한 위생 관리 W 클렌징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W 러브 ▲편한 언더웨어 W 웨어다.

월경 주기 관리 서비스 ‘W케어 서비스’도 새롭게 론칭한다. 올리브영 앱에서 서비스에 가입하면 월경, 배란, 가임,

월경 전 증후군(PMS)까지 개인별로 월경 주기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올리브영이 W케어 집중 육성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외에서 여성 건강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상품, 서비스가 각광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7년 세계 펩테크 시장은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리브영은 연내에 휴대폰 홈화면에서 W케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젯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캠페인도 펼친다. 올리브영은 여성들이 월경 주기에 따라 일상에서 겪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웹드라마 4편을 제작했다. 웹드라마는 오는 17일부터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W케어 주요 상품을 최대 47% 할인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광동제약 의약연구개발본부장에 배기룡

의약사업개발부문장 겸직

광동제약은 연구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일 배기룡 상무이사를 의약연구개발본부장(사진)으로 선임하는 신규 인사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배기룡 의약연구개발본부장은 의약연구개발본부를 총괄하며, 의약사업개발부문장을 겸직한다.

배 의약연구개발본부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웅제약, 한독약품,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코리아, GSK 아시아태평양&일본, T&R 바이오랩 등을 거쳤다.

2017년 광동제약 입사 후 신사업TF



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외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아우르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며, 2020년 의약사업전략부문장을 맡아 유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미중족 의료수요를 겨냥한 제품을 도입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최근에는 mRNA 치료제 및 백신 분야 바이오테크 선도 기업 모더나와의 업무제휴 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HD현대, ‘드림보트’ 개원…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앞장

〈사내 어린이집〉

최대 300명 영유아 보육 가능
정기선 사장 “육아 도움 기대”

HD현대가 300명까지 보육 가능한 규모의 사내 어린이집을 열고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나선다.

HD현대는 9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신사옥 ‘글로벌R&D센터’에서 사내 어린이집 ‘드림 보트’의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사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김명수 분당구청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드림보트 어린이집은 연면적 2222제곱미터(672평), 최대 정원 300명 규모의 영유아 통합 보육시설이다. 2개 층에 걸쳐 14개 보육실과 6개의 놀이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만0세부터 만5세가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왼쪽부터), 신상진 성남시장, 김다정 드림보트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성현숙 드림보트 어린이집 원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김명수 분당구청 구청장이 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드림보트 어린이집 개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HD현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최장 밤 10시까지로 정해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거나 귀가가 늦어진 경우에도 상황에 맞춰 등하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침, 점심, 간식은 물론 저녁까지, 찬한

경 식재료로 만든 하루 네 끼의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의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최대 40%까지 낮춰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도록 했다. 드림보트 어린이집에는 유아교육 전문 교사, 간호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50명의 교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만 3~5세 유아반에는 2명의 원어민 강사가 머무르며 생활지도 및 영어 교육을 담당한다.

정기선HD현대 사장은 “직원들의 큰 고민거리인 육아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곳 드림보트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경력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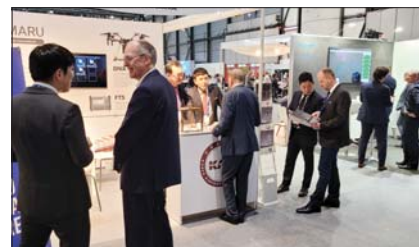
KB국민은행, 적십자화비 2.5억 기부

KB국민은행이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화비 2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활용된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왼쪽)과 김재관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DL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DL그룹이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DL(주)를 비롯해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며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해진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DL그룹



공항공사, ‘에어스페이스 월드’ 참가

한국공항공사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에어스페이스 월드(Airspace World) 2023’에 참가해 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시 현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전술항행표지시설 등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장비 9종을 선보였다. /한국공항공사



교촌치킨,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점 오픈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촌치킨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점’은 147평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매장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공항 내 위치해 있다. /교촌치킨

홈쇼핑

‘2023 일사천리’ 사업 추진

홈쇼핑이 올해에도 ‘일사천리(一社千里)’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해 143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보 및 홍보를 위한 ‘2023년 일사천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일사천리는 전국 광역시·도 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와 연계해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품을 발굴해 TV홈쇼핑 방송으로 판매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김승호 기자

SKT “T팩토리서 인생샷 남기세요”

‘Just paused, 우리가 남긴 순간들’ 4가지 콘셉트… 나만의 앨범 제작

SK텔레콤이 레트로에 열광하는 MZ세대를 T팩토리로 유혹한다.

SK텔레콤은 ICT 복합 문화공간인 T팩토리(T Factory)에 필카 감성 충만한 ‘Just paused, 우리가 남긴 순간들’ 전시를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봄 피크닉 시즌,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 순간의 추억들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는 MZ세대들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한국 후지필름과 함께 T팩토리 1층을 4가지 컨셉의 사진 스튜디오로 조성했다. ‘Retro’ 스튜디오는 Y2K, 레트로 무드로 스타일링했으며, ‘Flowers’ 스튜디오는 들꽃, 야생화 등 꽃들로 스타일링한 스튜디오다. ‘Rays of Light’는 다양한 색의 조명으



SKT는 9일 T팩토리에서 ‘Just paused, 우리가 남긴 순간들’ 전시를 진행한다. 9일 밝혔다. /SKT

로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한 스튜디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나’는 자신의 모습이 아날로그 TV화면에 송출되는 미디어 아트 컨셉의 스튜디오다.

T팩토리를 방문한 고객들은 SNS에서는 많이 접했지만 실제 체험해 보기는 어려운 독특한 컨셉의 사진들을 4가지 컨셉의 스튜디오에서 촬영, 나만의 앨범을 만들 수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박성호 “국민에 신뢰받는 공공기관 될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진공 청렴의 날’ 맞아 메시지 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호 이사장(사진)이 9일 ‘소진공 청렴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소진공은 2019년 11월부터 매월 9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 청렴 문화 향상을 위해 기관 비전 및 반부



패 관련 사항을 임직원에게 적극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 이사장은 “신뢰와 소통, 청렴한 조직 문화와 업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ck@

통합물류협회, 박찬복 8대 협회장 취임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한국통합물류협회 제8대 협회장에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사진)가 취임했다.

박찬복 신임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협회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1일부터 2년간이다. /김승호 기자

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 연임 성공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전날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21대 조합장에 문진섭(現) 조합장(사진)이 재선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 1468명 중 1428명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이뤄졌으며 개표 결과 문진섭 후보가 908표(득



표율 63.7%)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문진섭 당선자는 오는 21일부터 새로운 4년, 21대 조합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국어정책과장 김미라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연경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문화교류홍보과장 배양희

부음

▲안순임씨 별세, 백용규(새전북신문

기자)씨 모친상= 9일, 부안 호남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정오. 063-581-1004

▲우순규씨 별세, 윤미용(청주시 사직2동장)씨 모친상= 9일 오전 7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43-279-0144

▲박명연씨 별세, 성훈(우리은행 강서영업본부 본부장)씨 모친상= 9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1일 오전. 031-961-9400

LG “부산, 엑스포 개최 준비 마쳐”

‘BUSAN is Ready’ 광고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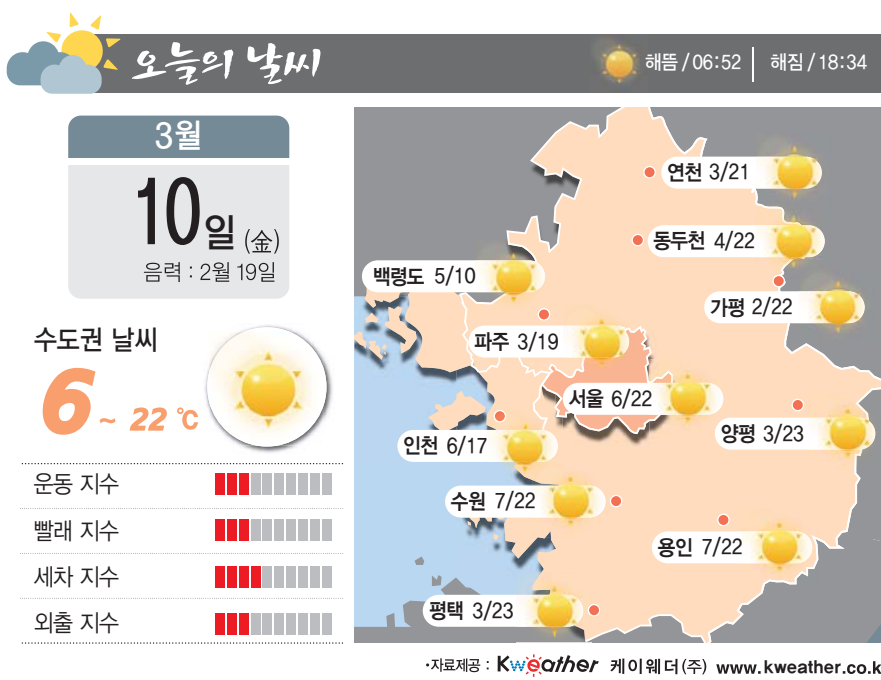
LG가 현장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LG는 6일부터 한달간 부산역 대합실 대형 전광판 4곳에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응원’ 광고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BUSAN is Ready’라는 문구로 부산이 엑스포 개최 준비를 마쳤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BUSAN 알파벳마다 랜드마크를 녹여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부각했다.

/김재웅 기자 juk@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2’식 시장경제와 마각



차 상 국 의
관망과 훈수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말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의 고삐를 되잡던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 14차 대표대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중국 헌법에도 명시된 이 개념에 대해 우리들은 아직도 낯설다. 중국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중국 공산당 당헌(당정)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장 앞에 명기하며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신봉하며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 진영과 맞서고 있는 체제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유제와 상치되는 ‘웬 시장경제’일까 하는 의문이 있겠지만 이 개념은 사실상 미국에 맞서는 현 중국을 이해하는데 있어 키워드이다.

용어적으로는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초로 정부의 거시적인 조절 아래, 시장 메커니즘을 가미해 사회자원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을 지향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시진핑 체제 이후 10여년의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개념을 좀더 이해하게 됐을 것이다. 특히 몇 년전부터 전면에 등장한 ‘공동부유’라는 아젠다를 보면 더욱 실

체를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다함께 잘 살자’는 국가적 슬로건으로 이어져 빅테크기업 (대형 정보기술기업), 사교육, 부동산 등 빅2 경제의 견인차였던 민간 경제의 대형 주체들을 규제와 간섭의 사슬에 얹아냈다.

고도성장기에 중국정부로부터 적사대접을 받았던 외자기업도 예외가 없는 형국까지 이르렀다. 급증하는 노동비용 외에 암묵적 장벽, 비효율적 재산권 보호, 다중적 법집행 구조 등에 삼성과 애플, 도시바,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국적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을 떠났거나 채비중이다.

지금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시행할 반도체 지원법의 전제조건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이익 환수, 10년간 중국 투자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고용, 보육, 노동 분야에서도 기업에 황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기업의 기밀 누설, 자유로운 투자 및 경영활동 제약, 영업비밀 노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들 독소조항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삼성전자의 경기도 평택공장을 방문해 K-반

도체가 세계 최고라고 추켜세우고 국내 반도체기업의 미국투자를 당부하던 모습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미국에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장기프로젝트에 이미 착수한 우리 기업은 세계최대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까지 감수해야 할 판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조차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미 정부가 실패한 법안에 담겼던 많은 사회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쓰고 있다”며 기업보조금을 통해 보육, 노동, 고용에서 외국기업들에 과도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맹주인 미국에서 벌어지는 ‘중국스런’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자국에 유지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에 국내 산업계가 홍역을 겪고 있다. 이는 자칫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를 공동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애초부터 대놓고 공공의 민간 간섭과 공유를 내걸었지만 중국 경제의 명분 뒤에 숨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모방하는 상황이다. 빅2의 틈바구니에서 미래산업의 생존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국회도 ‘원 팀’을 필요로 한다



기 자 수 첩
최 영 훈
(정치경제부)

여야 정치권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저마다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과 함께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9일 첫 최고위원회의 메시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 한 마음이 돼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다소 생각 차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 윤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윤명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운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나로 뭉쳐 당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대통령이 곤란 겪는 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내홍 수습 때문이다. 최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색출’에 나선 게 문제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후폭풍에 자제하려고 요청했고, 여기에 호응하듯 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민주당원들도 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전원에게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단일대오로 이기는 민주당을 원한다!”는 글귀가 적힌 떡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정작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문제의 경우 ‘각자

도생’하고 있다. 서로가 제시하는 해법만이 마치 ‘정답’인양 한 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민생 현안을 챙기자고 지난 1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까지 열었으나 해결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싸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다.

그나마 반도체 기업들 투자세액 공제를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만 여야 정치권이 함께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은 뒷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익과 관련된다든지 경제 살리기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넘어서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그런 풍토를 앞으로도 계속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처럼 여야 정치권이 따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원팀’을 꾸려 민생 현안에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choiyoungkr@

오늘의 운세 3월 10일 (음 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나이를 망각하고 경계망동하지 마라. 48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 잡히기를 기대하는가. 60년생 인색하게 베풀고 집안청정창 보내지 말도록. 72년생 두드려면 열릴 문이다. 84년생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해야.



37년생 한번 기울면 회복시키기 어려우니 건강을 먼저. 49년생 지금의 행복이 가장 소중. 61년생 능력을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하다. 73년생 실수가 있어도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다시 열심히. 85년생 친구사이라도 시기질투는 있는데.



38년생 자승잡박(自繩自縛)이니 누굴 탓하라. 50년생 걱정거리 없다고 남의 불행을 불구경하지 말 것. 62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할 일을 찾아보자. 74년생 오후 돈 문제해결이. 86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39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자. 51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63년생 이별한다고 시댁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75년생 아이디 어창의력이 빛난다. 87년생 담력을 크게 갖고 시험공부에 임하도록.



40년생 내 발등을 찍는 것은 내 도끼이다. 52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64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76년생 기술로 가는 길이 지금은 최선이라는 신념을. 88년생 부모에게 화를 내면 결국에 후회.



41년생 동물학대하는 친구는 말리지만 비둘기 밥은 주지 않도록. 53년생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길 듯. 65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돌아다녀 본들. 77년생 금전 문제가 해결된다. 89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42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 54년생 남에게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도록. 66년생 재혼에 조금함이 화를 부른다. 78년생 백살 남은 인생이니 지금부터 노후계획을 차근히. 90년생 어떤 선택도 여자가 없으니 기다려라.



43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55년생 나무는 잘 가꾸어야 기둥이나 대들보가 된다. 67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하기 나름이다. 79년생 다툼이 생겨도 도와주는 이가 있다. 91년생 노력한 만큼 영업성과가 나타난다.



44년생 마음가짐은 즐겁게. 56년생 산행을 가보자. 68년생 좁은 길을 건널 때 운전은 천천히. 80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해나간다. 92년생 플라톤은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 했다.



45년생 남의 시간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57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잘 살펴보자. 69년생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81년생 갈 길이 멀어도 일단 시작. 93년생 원수끼리 한배에 탈수도 있음이니 남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46년생 위기를 겪으며 인간성을 안다. 58년생 시작도 없이 욕심을 부리면 발목을 잡힌다. 70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오후휴식. 82년생 상상으로 행복하다. 94년생 대가를 치르고 겪어보기 전에는 사전준비가 안되는 게 사실일 것.



47년생 실패의 학습효과로 투자는 하지 않는다. 59년생 고향의 풍경이 아름답다. 71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다. 83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95년생 고서에서는 효를 거역하는 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라 했는데.



김상회의四季

좋은 이름은

그런데 전술하였다시피 친족간의 항렬을 중시하다 보면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한자이름의 기본적인 성(姓)과 이름 두자 중의 하나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변수를 둘 수 있는 글자는 하나밖에 되지 않으니 성명학의 원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 게다가 원형이정(元亨利貞)의 4격까지 맞춰야 하며 발음상의 오해합까지 고려할 때 이름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해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 난 연월일시의 사주를 감명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인지라 단순히 획의 조화만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닌 고난도의 작업이 된다.

음양오행 이론은 사계절이 있는 북반구 동방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소산이다. 음양오행은 물질과 정신분야를 두루 포섭하면서 상호 교류되는 에너지파장에 기반을 둔 분야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실제로 물질인 육신신체에 병을 가져오고 반대로 몸이 아프면 건전한 사유 활동에 지장이 있듯이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엮여있는 신경물질 반응체계로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외자이름이라 할지라도 이름의 음양오행과 한자획수는 적용된다.

조선시대의 경우 외자이름은 왕가 중에서도 왕권을 이어 받는 왕들이 외자이름을 썼으며 왕의이름에 사용된 글자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외자이름을 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글이름의 경우는 발음의 오해조화를 따지니 수리성명학이 적용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수리성명학과 음양오행에서는 운세를 보완하려는 인간노력의 하나였고 뜻과 소리역시 에너지를 준다는 점에서 팔자의 보완장치로 분명 일리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구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4					2
		1			7	
			4	1		
3			6	8		5
			7	5	3	
1			2	4		6
			1	2		
		8			3	
	1					6

			1			5	2	
9	4			2			1	
2								
			7					1
	2		9	1			7	
1				3				
								8
	8			4			9	2
	1	3			2			

정답

8	9	2	1	7	8	9	1	6
7	1	8	9	9	6	8	1	2
1	9	6	2	8	1	8	9	7
9	8	8	7	6	2	1	9	1
2	6	1	8	9	1	7	8	9
9	1	7	8	1	9	6	2	8
8	8	9	1	1	7	2	6	9
6	7	1	9	2	9	1	8	8
1	2	9	6	8	8	9	7	1

9	9	7	2	6	8	8	1	1
2	6	1	1	7	8	9	8	9
8	8	1	9	1	9	2	6	7
9	9	2	8	8	7	6	1	1
8	1	8	1	9	6	7	2	9
1	7	6	9	1	2	9	8	8
7	8	8	6	9	1	9	2	1
1	1	9	8	2	9	8	7	6
6	2	9	7	8	1	1	9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신제품 출시!



포켓몬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강력한 맥세이프 자성! 슬림하고! 가볍다!
최대 20W 유·무선 고속 충전!



포켓몬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귀여운 피카츄 얼굴을 그대로 담은 마우스패드로
나만의 PC공간을 밝고 귀엽게 꾸며보세요!



상품문의 | 게임피아(주) 공식 온라인몰 : www.sofrano.com & TEL : 031-447-8858

※해당 제품은 한국 내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본 제품은 한국 내 독점적 저작권 관리자인 (주)포켓몬코리아와의 정식 계약에 의해 생산되므로 무단 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만 판매 가능.

©Nintendo, Creatures, GAME FREAK, TV Tokyo, ShoPro, JR Kikaku. ©Pokémon.
포켓몬스터, 포켓몬, Pokémon은 Nintendo의 상표입니다.

GamePia

성숙기인가, 정체기인가... 작년 와인 수입량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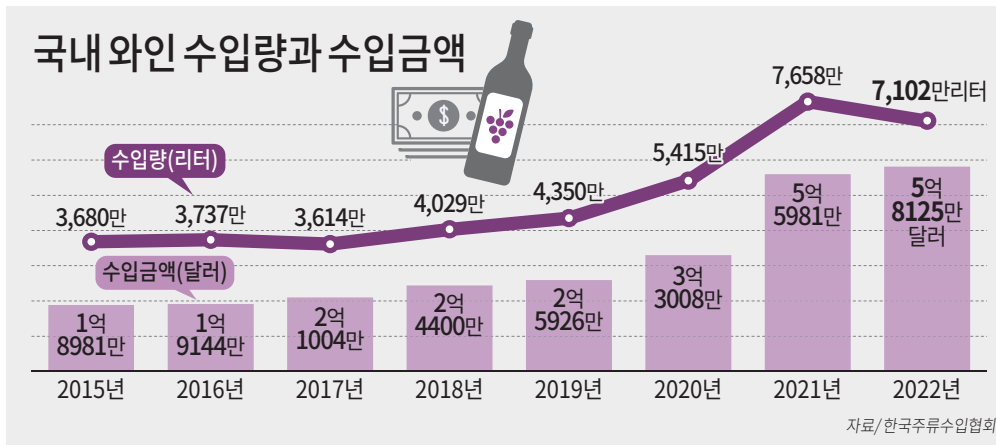
안 상 미 기자
Why, wine

성숙기인가, 정체기인가.

우리나라 와인시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해 와인 수입 규모가 다시 한 번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마냥 좋아하기엔 뭔가 짝 짝하다. 일단 자체로도 증가폭이 미미한데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와인 수입 규모는 5억8125만 달러로 집계됐다. 2억 달러 안팎에 머물렀던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는 6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규모 약 7700억원에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와인 시장의 규모는 이미 2조원대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로 보면 기세는 크게 꺾였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은 3.8%에 그쳤다.

전체 수입 주류 시장을 놓고 보면 와인과 맥주 같은 비교적 '순한' 술이 주춤했고, 위스키와 꼬냑, 고량주 같은 '독한' 술이 다시 살아났다. 위드 코로나로 외부활동을 시작하면서 소위 '집술'보다 '업소술'을 찾는 이가 많아진 탓이다.

게다가 물량 기준으로 보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수입된 와인은 7102만 리터로 전년 대비 7.3% 줄었다. 와인에 돈을 쓰긴 했지만 확실히 덜 마셨단 얘기다.

와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의견은 엇갈

린다.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수 요인이 사라진 이후로도 와인 시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또 절대적인 물량 소비는 줄었지만 금액은 유지됐으니 질적 성장의 신호라는 분석이다.

실제 저가 와인의 대표 주자들인 칠레와 스페인 와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칠레 와인은 수입 규모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로는 10.8%, 스페인 와인도 12.4% 줄었다.

반면 와인 중주국인 프랑스와 미국 와인은 올해 들어서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다.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은 금액 기준으

로 각각 12.3%, 13.2% 늘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 소비가 많이 늘었다. 스파클링 와인의 수입액은 26.5%, 수입량도 21.4% 늘었다.

반면 이제 와인 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이들도 많다. 금액 부분의 경우 소비자들 사이 좋은 와인을 찾아 나섰다기 보단 와인 가격 자체가 오른 결과로 보는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와인 업계에도 불어닥쳤고,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널뛰기를 하는 환율도 악재 요인이긴 하다.

내부 해석은 뜻이 모아지지 않고 있지만 외부 시선은 긍정적이다.

프로바인이 전 세계 와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유망시장이다. 미국 와인업계는 2023년 가장 매력적일 와인시장으로 한국을 꼽았고, 와인중주국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한국을 상위권에 올려놨다.

오는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3대 와인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비넥스포(Vinexpo)가 한국에서 열린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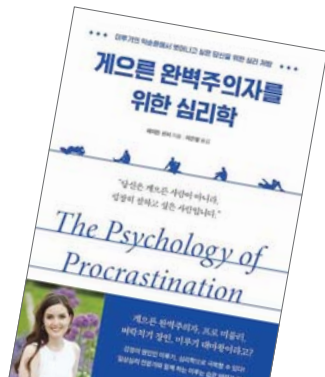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배가 아프다. 못된 심보를 벌 주려는 건지 정수리에 새치가 한 가득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이란단.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 데 난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반성해봤다. 딱 한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행동력. 성공한 자들은 엉덩이가 가벼워 빨리빨리 일을 시작했고, 필자는 머릿속으로 할 일을 계획만 하다가 지쳐 아무것도 안 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은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라는 책 표지의 문구가 눈에 띄어 구매해 읽게 됐다. 할 일을 안하고 미적대는 사람들은 “오늘은 창조적인 활동을 할 기분이 아니야”, “편지가 눈에 띄니 집 청소를 먼저 해야 겠어”, “에너지가 바닥나 움직일 수 없어”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저자는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과도하게 편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만족감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 탓에 즉각적인 보상과 즐거움을 주는 더 흥미로운 과업으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책은 “미루는 사람은 실패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에 봉착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대상에 저항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으며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면 자제력과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헤이트너 지음/이은정 옮김/시크릿하우스

동기 부여에 타격을 입어 결국 미루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불안감부터 느끼며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데 그런 순간은 없다고 책은 강조한다.

저자는 뭐든 잘해내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고 기한이 정해진 목표 설정 ▲과업을 시작하며 드는 불쾌감보다 끝마쳤을 때 느낄 보람에 집중 ▲과업을 수행하면 얻을 이점을 목록으로 정리 ▲미루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것을 조언한다.

252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라이어스

케스 스타인 지음/김도원 옮김/arte(아르테)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이 판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 ‘라이어스’는 법철학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 ‘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펼친다. 책은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

면서도 허위 사실의 해악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위축효과가 가리키는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처벌과 검열이 아닌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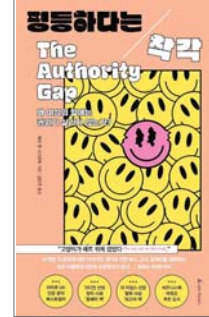
272쪽. 2만4000원.

평등하다는 착각

메리 앤 시그하트 지음/김진주 옮김/앵글북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를 만난 자리에서 그녀를 획 지나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대통령의 남편이 되느니 차라리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매컬리스는 허공에서 머뭇대던 교황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일랜드 국민이 뽑은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입니다. 님이 보기에 좋든 싫든 말이죠” 일을 잘해도 승진에서 경쟁자에게 밀리고, 통찰력 있

는 말을 해도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내세우면 ‘드세다’고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평등함의 빈틈을 대담하게 고발한 ‘21세기 여성 차별 보고서’



488쪽. 2만2000원.

죄 없는 죄인 만들기

마크 갓시 지음/박경선 옮김/원대박스

사법제도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요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례 나래수퍼 강도치사 사건, 수원역 노숙자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죄 없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감옥에 갇힌 이들이 존재한다. 책은 죄 없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검경 및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관행과

정치적 요인, 그리고 오판에 관여하는 인간의 심리 결함을 분석한다. “형사사법제도는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린 채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의에 눈을 감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420쪽. 2만5000원.



/김현정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검토할 것” /사진 뉴시스
▲시민단체들,尹 당선 1년에 “민생 파탄에 전쟁 위기 고조”

▲MZ노조,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제 개편안 반대
▲서울대 “정순신 아들에 할 수 있는 한 최대 감점했다”



▲강남 산후조리원서 RSV 집단감염... 복지부 “이달 중 실태조사”
▲권기섭 고용차관 “근로시간 개편안,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리” /사진 뉴시스

힐링가든에 수영장까지... 내 집에서 누리는 '호캉스'



아파트의 미학(美學)

흑석리버파크자이

9호선 흑석역서 도보로 15분 거리
단지 외벽 유리로 디자인 '커튼월룩'
유니자이 패턴 등 다양한 특화설계

단지 입구에 '석가산' 정원 조성해
흑석뉴타운 내 최초로 수영장 공급

최근 찾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은로초등학교와 중앙대사대부속초, 중대부중, 중앙대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중앙대 병원, 서달산수목학습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인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흑석3재정비촉진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진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0층, 26개동, 총 177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59~120㎡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검은색의 '자이(Xi)' 로고를 부각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뽑내고 있는 단지는 외벽을 유리로 디자인하는 커튼월룩과 유니자이 패턴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층간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층간 차음재를 단지에 적용했고 일부 세대에는 개방형 발코니를 제공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반영 및 시스템 창호 등 단열에 효과적인 설계도 도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24시간 내내 청정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 내 천장에 '시스클라인 시스템'을 적용했다"면서 "200만 화소 CCTV를 비롯해 주차장 비상 호출 버튼, 주차유도시스템, 번호 인식 주차 관제 시스템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흑석리버파크자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입구에 위치한 힐링가든(Healing Garden2)에는 단차를 이용해 조성한 '석가산' 정원이 조성됐다.

자이 브랜드의 상징 나무인 팽나무를 도입한 휴게공간 엘리시아간가든을 비롯해 갤러리가든, 블랙엘리시아간가든, 주얼리가든 등 단지 내 테마가든이 조성돼 입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지에는 주로 고급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영장 시설이 흑석뉴타운 내에서 최초로 공급됐다. 입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작은도서관, 지식나눔터(공부방),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에는 '사탕요정들의 아뜰리에 공장', '틸보 아저씨의 트럼펫 아뜰리에', '보석장인의 아뜰리에', '달리의 기억의 아뜰리에', '피카소의 아뜰리에', '우주 개척시대'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특히, 단지 내에는 공사 중인 어린이집이 있다. 주변에는 구립 흑석어린이집과 공립 서울 은로 유치원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과 나무를 심는 등 '수생 비오톱'을 조성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① 단지 입구 조성된 '힐링가든'

② 단지 내 조경 '갤러리가든'

③ 단지 내 조성된 '틸보 아저씨의 트럼펫 아뜰리에'

④ 단지 내 조성된 휴게공간 모습

/김대환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현대차 러 공장 카자흐에 매각 협상 진행 중" 러 언론

▲ 美 바이든, 지지율 42%로 9개월만에 또 최고치 경신

/사진 뉴시스

▲ 블랙록 "美연준, 기준금리 6%까지 인상 가능성"

▲ 6살 친딸 성폭행·불법촬영 하고도... 고작 10년?



▲ "12년 만에 한일정상회담... '셔틀외교' 재개 조율" 日 언론

/사진 뉴시스

▲ EU, 우크라 탄약 지원 촉구... "1조4천억원 규모 지출 계획"



[금융]
예치기간 긴
‘청년도약’
흥행은 글썄
08

metro[®]

Life

[라이프]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에
1000억 투자
L1



달콤·부드러움에 폭~ 중국도 러시아도 “사랑해요, 밀키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칠성음료 ‘밀키스’

국내 유성탄산음료 시장에서 점유율 80%가 넘는 압도적인 1위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밀키스(MILKIS)’는 1989년 4월 롯데칠성음료에서 출시됐다.

기존 탄산음료(콜라, 사이다)와는 차별화된, 우유를 넣은 부드러운 탄산음료란 점에서 출시와 동시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하는 밀키스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만 500억원대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1989년부터 지난 2016년말까지 출시 28년만에 국내 유성탄산음료 최초로 국내 기준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라섰다.

◆차별화된 맛과 인상적인 TV광고로 인지도 끌어올려

밀키스가 탄생한 1980년대에는 ‘88서울올림픽대회’ 등을 앞두고 기존 청량음료 중심에서 스포츠음료, 건강음료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음료 제품의 스펙트럼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다.

롯데칠성음료는 기존 탄산음료와 차별화해 우유가 들어간(혼합분유 함유) 유성탄산음료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소비자의 높아진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앙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수차례 소비자 조사를 진행, 부드러운 맛과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

귀에 쏙박히는 브랜드명도 제품 출시를 앞둔 1988년 말 사내 공모, 소비자 선호도 조사, 신제품 마케팅위원회 회의 등 내부 심사와 광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밀키스’를 제품명으로 결정했다. 밀키스는 우유탄산음료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살리면서도 감성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도록 ‘밀크(Milk)’와 ‘키스(Kiss)’라는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어졌다.

롯데칠성음료는 밀키스가 출시된 그해 홍콩 영화 ‘영웅본색’으로 잘 알려진 배우 주윤발을 TV광고모델로 기용해 화제를 모았다. 마치 홍콩 느와르 영화를 재연한 듯한 블록버스터급 광고 영상과 마지막 장면에서 주윤발이 외친 “사랑해요, 밀키스”는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어가 됐다. 주윤발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효과로 인해 밀키스는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에서도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다.

◆국가별 전략세워 글로벌 입맛 사로잡아

밀키스는 해외에서도 대만,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현지 음식과 접목한 푸드 페어링 마케팅, 사과, 망고, 딸기 등 국내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맛 출시, 해외 파트너와의 유대강화 및 판매채널 확대, K팝과 드라마를 앞세운 한류 마케팅 등으로 글로벌 유성탄산음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밀키스를 1250만캔(250mL 기준) 이상 수출했다. 롯데칠성음료가 2020년 하반기 대만



중국 상해 허마마트에서 고객이 밀키스를 구매하고 있다.



밀키스가 대만 가르푸 네이리점에 진열되어 있다.

/롯데칠성음료

국내 유성탄산음료 점유율 80% 압도적 1위
우유 들어간 탄산음료, 밀크+키스 단어 조합
광고모델로 주윤발 기용해 유행어 만들기도

중국, 미국 등 해외 현지에 맞춘 한류 마케팅
다양한 과일맛 밀키스로 러시아 입맛 사로잡아
고객 니즈 반영해 당류 줄인 ‘밀키스 제로’도

에 밀키스를 본격적으로 수출한 이후 3년만에 달성한 최대 실적이다. 밀키스가 연간 1000만캔 이상 수출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미국에 이어 대만이 4번째다. 롯데칠성음료는 대만에 지난 2020년 20만캔의 밀키스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230만캔, 지난해는 1250만캔 이상 수출했다.

SNS 소통과 소비자 체험을 통한 리뷰 마케팅 등을 펼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섰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키스를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와 대만 최대 슈퍼마켓 체인 PX마트 등에 발빠르게 입점시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효했다.

밀키스는 2021년 기준 약 6360만캔(250mL 환산 기준)을 수출하는 등 현재 러시아 내 독보적인 1위 유성탄산음료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밀키스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맛보지 못했던 우유가 들어간 탄산음료라는 특별한 맛과, 한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총 7가지 맛(오리지널, 딸기, 메론, 복숭아, 망고, 포도, 바나나)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기후적, 지리적 여건상 다양한 과일을 생산하거나 맛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종류의 과일맛을 지속적으로 선보였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과일맛 밀키스로 러시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우유가 들어간 건강한 탄산음료라는 이미지를 어필해 웰빙을 추구하는 중국 젊은층의 입맛을 공략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 결과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 중국 시장에 ‘밀키스’를 약 2500만캔(250mL 환산 기준) 수출하며 1990년대 중국 음료시장 진출 이후 30여년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헬시플레저 열풍에 ‘밀키스 제로’ 인기몰이

롯데칠성음료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제로 칼로리에 대한 고객 니즈를 반영해 지난달 ‘밀키스 제로’를 출시했다. 밀키스 제로는 기존 250mL에 31g 들어갔던 당류를 1g로 줄인 덕에 열량도 130kcal에서 8kcal로 줄었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밀키스제로는 1차 선풍매 당시 1시간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소비자들의 요청에 2차 판매도 진행했으나, 역시 20여 분 만에 조기 품절됐다. 현재는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밀키스 제로’의 범용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며 ‘밀키스’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글로벌 유성탄산음료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대한배구협회, 여자배구대표팀 코치 등 공개모집
▲‘WBC 개막’ 야구팬들로 북적이는 도쿄돔

/사진 뉴시스

▲2023 WBC, 4강 꿈꾸는 한국, 드디어 결전...‘호주를 잡아라!’
▲우승상금 59억원...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개막



▲주말 전국 봄비 내리고 기온↓...다음 주 내내 맑아
▲‘제2의 합지로 만든다’...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진 뉴시스